금주의 기도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패역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불러 지도자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미국대선을 앞두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12)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6월 6일 (토) 제 153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후보자 인격과 신앙에 달려있다!

바나리서치, '2016 대선 관전 포인트 설문조사

오는 8월에는 공화당 대선 경선 판도를 가늠해볼 아이오와 주 공화당 모의투표(Straw Poll)가 열린다. 구속력 없는 여론조사 성격의 투표지만 공화당 주자들의 우열을 확인해보는 첫 시험무대로서의 정치적 의미가 크다. 특히 내년 1월 대선 레이스의 신호탄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의 결과를 미리 점쳐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미 대선 경쟁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주자들은 올 한해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대선 어젠다 발굴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을 예측한다. 특히 '민생'이 핵심 키워드다. 증시가 다시 살아나고 경제성장률 등 각종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표를 직접 행사하는 중산층 유권자들로서는 아직 바닥경기의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의 일차적 책임을 진 민주당 소속이면서 '부자강연 논란'까지 빚었던 클린턴 전 장관으로서는 소득불평등이나 서민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어젠다를 만들어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공화당 주자들로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각종 개혁 어젠다에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대응하느냐가 숙제다. 특히 이민개혁이 벌써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 주자로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해주는 것 아니냐는 보수층 유권자들의 불만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갈수록 커지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도 아우르는 '나만의 해법'을 제시하는 게 과제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정부 건강보험(메디케이드)의 확대 논란, 노조 의무가입과 노조비 강제징수 등을 금지한 '근로권익법' 시행, 주별 교육과정 및 평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국가성취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과 그에 따른 공통교육과정 도입 확대 문제 등도 공화당 각 주자에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는 쟁점들이다.

그러나 바나리서치는 '2016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후보자들의 경력이나 공약들보다는, 쟁점이 되는 정책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인간성 그리고 정치적 경력을 우선시 여긴다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Election 2016 Preview: The Faith Factor). 여기에 후보자들의 신앙 역시 대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혀준다.

이민정책과 종교적 자유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미국인들 중 과반수는 2016 대선에서 민주, 공화 양당 후보자들의 공약들보다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 중, 적어도 한 가지는 반드시 눈여겨보겠다고 응답했다.

1. 핵심 정책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나 자세 – 71%
2. 후보자들의 인격과 신앙 – 41%
3. 후보자들의 정치적 경력 – 22%

이외에도, 후보자들의 정치 성향과 당 소속(15%), 교육 환경과 최종 학력(11%)나 성품(10%)이 두 자리 수에 들었고, 연설 능력(5%), 나이(2%),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지지(2%) 그리고 신체적 외형(1%)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도에 따라 후보자들을 지지할 수 있는 우선순위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밀레니엄 – 교육(19%), 성품(18%) 그러나 정당 성향에는 11% △X세대-쟁점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자세, 후보자의 성격과 신앙, 정치적 경력 △부머스 – 후보자의 인격(45%), 쟁점 정책들에 대한 입장(76%). △엘더스 – 정당 성향(23%), 정치적 경력(27%) 그러나 교육(6%)이나 성격(4%)

〈3면으로 계속〉

빈곤의 악순환...저소득층 아동 성적저조

WSJ, 소득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현상 심리과학 분석 보도

인구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 가운데 20% 이상이 빈곤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상황은 2000년 이래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교육학자인 숀 리어든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소득에 따른 학업 성취 격차(income achievement gap)도 확대되는 추세다. 저소득층 아동이 고소득층 아동에 비해서 학교 성적이 낮은 현상을 말한다.

교육은 향후 소득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은 자라나는 미국 어린이들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악순환이 애초에 발생한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신경과학은 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도한다(Brains, Schools and a Vicious Cycle of Poverty: Research spotlights the grim effect of poverty on education).

두뇌개발, 유전자와 신체/사회/지적환경 간 상호작용 경험은 '증식'과 '가지치기'에 엄청난 영향

최근 '심리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존 가브리엘리(MIT)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14세 공립학교 학생 58명의 뇌단층을 촬영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급식비 무료 또는 감면 자격이 주어지는 학생들이었다. 나머지 35명은 중산층 가정 학생들이었다.

연구진은 두 그룹의 두뇌에서 일관된 차이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두뇌 여러 영역에서 피질의 두께를 측정했다. 저소득층 학생의 두뇌 피질은 고소득층 학생에 비해서 얇았다.

저소득층 학생들 가운데 소수 인종, 민족 출신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인종이나 민족은 피질 두께와 연관관계가 없었다.

연관관계가 있는 요소는 소득으로 나타났다. 피질 두께가 얇은 학생은 두꺼운 학생에 비해서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고소득층, 저소득층 할 것 없이 공통된 경향이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기독교상담학 석사과정 개설"

원격교육의 특징
1. 학사(BABS/BACC), 석사(MAT/M.Div/MACC) 정규학위 취득
2.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대학원 학점인정 및 편·입학
3. 목회학 석사과정 이수 후 미군 군목 장교로 지원
4.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정회원 · ATS 정회원 · TRACS 정회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855

2면 미국기독교 '거룩한 덮개' 역할 아직 유효

3면 가장 행복한 나라 '스위스'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16면 인터뷰 신임 총회장 김영수 목사

Senior Pastor

Description
The Korean Christian Church ("KCC") is seeking a Senior Pastor to serve as the spiritual leader of the church and to provide Jesus-centered and gospel-centric ministry. KCC is a non-denominational and congregational church located in Honolulu, Hawaii.

General Qualifications:
1. Accredited theological seminary graduate (Masters of Divinity)
2. 10 year of pastoral experience preferred
3. Able to minister to Korean and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members
4. Meet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1 Timothy 3:2-7

Desired Qualifications:
1. Conservative theological background
2. Bilingual in Korean and English
3. Authorization to work in the US

Credential and other documents
1. Resume
2. Cover Letter which includes an individual mission statement, statement of faith, and personal testimony
3. A copy of Masters of Divinity diploma and acopy of ordination certificate
4. Two recent audio/video sermons for KCC to keep (bi-lingual sermon preferred)
5. Two recommendation letters –sealed with signature and personal contact (1 professional;1 personal)

Miscellaneous
1. Submit application via E-mail or postal service. All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KCC is not responsible for lost or stolen document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e-mail Pastor Search Committee.
2. For those who pass paper screen, he/she may be requested additional documents and interviews.

Submission
1. Address:Attn: Pastor Search Committee
Korean Christian Church
1832 Liliha St. Honolulu, HI 96817 USA
2. E-mail: hi.kcc.ptc@gmail.com
3. Deadline: 08/01/2015

호놀루루 한인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시 론

"위장된 페르소나(Persona)를 벗어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페르소나(persona)는 심리학에서 어떤 개인의 실제적인 내적 모습보다는 타인에게 비쳐지는 외형적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원래 페르소나는 그리스의 고대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Mask)을 일컬어왔는데,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이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의 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보통 천 개의 페르소나(가면)를 지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쓰고 관계를 이루어간다고 한다. 페르소나를 통해 개인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고 자기 주변 세계와 상호관계를 성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페르소나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심리구조와 사회적 요구 간의 적당한 타협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페르소나를 쓰게 되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감추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을 위장하기 쉬울 뿐더러 마치 유명한 배우와 같은 연기를 통해 언제든지 타인을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개인은 언제든지 다양한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해 서로 다른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민낯은 언제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 받는 페르소나에 의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운명의 멍에를 스스로 지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페르소나에 의해 연기되는 등장인물은 언제나 타인일 뿐 자신은 아니기에, 진정한 자아 상실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우처럼 때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연기함을 통해 언제든지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위장함으로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언제나 위장된 평안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페르소나의 위선적인 모습은 인류 조상인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민낯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감추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다(창3:7). 위장된 인간은 자신의 민낯을 감추었기에 자신의 죄과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또 다른 나를 위장해가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신실하고 정직해야 할 내가 오히려 타인에게 죄과를 떠넘기고 자신은 페르소나 안에서 위장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는 것이다. 결국 페르소나는 자신에게 위임된 책임을 면하게 하고 이웃과의 신실하고 정직한 관계를 변질시켜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페르소나에 익숙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 등장한다. 그들은 외형적인 종교행위에 익숙했기에 내면에 간직해야 할 더 소중한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던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마23:23). 페르소나는 하나님의 의를 상실케 하는 위선이다.

예수님의 비유가운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도 페르소나의 허구를 보게 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눅9:11-12).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그럴듯한 율법적 종교행위의 페르소나는 보편적 인간의 죄인된 실체를 가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반해 세리의 기도는 오히려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 "세리는 멀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18:13).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형식적인 종교행위의 페르소나에 안주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낯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인간들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평생을 페르소나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서 페르소나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민낯에 대한 부끄러움과 황당함을 수반하기도 한다. 마치 화장발을 지워버리고 갑자기 민낯으로 마주앉은 아내를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전혀 생소하고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낯도 자주 대하다 보면, 화장으로 위장한 모습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 외형이 아니라 내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화장발보다 민낯이 꽃보다 아름답다. 저녁 거울 앞에서 하루 일상의 때를 다 지우는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이 아름답다. 이것을 우리는 '순수함', '거룩함'이라 부른다.

성도들이여!, 이제라도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위장된 페르소나를 벗어버리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복음의 일꾼들이여! 그럴듯한 목회성공으로 위장된 무화과나무의 페르소나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민낯을 사랑하자. 민낯의 친밀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긍휼, 자비와 사랑을 불어오게 한다. 페르소나를 벗어 던진 맨 얼굴을 보듬어줄 사랑을 하자. 진정한 안식과 평안, 편안함이 깃든 저녁 거울,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자.

미국기독교 '거룩한 덮개' 역할 아직 유효

미 언론, '2015 퓨리서치 설문조사 보도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L. Burger)는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각 시대마다 세계 전체를 덮어주는 '거룩한 덮개'가 있었다고 말했다. 거룩한 덮개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거룩한 덮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퓨리서치가 미 전역에서 성인 3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America's Changing Religious Landscape: Christians Decline Sharply as Share of Population; Unaffiliated and Other Faiths Continue to Grow)에 의하면 2007년에 비해 7.8%나 감소한 크리스천의 숫자를 두고, 주류 언론에서는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기독교적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the Christian Sky is falling)"고 주류 언론은 피터 버거의 거룩한 덮개를 '기독교적 하늘'로 재정의해, 드디어 미국사회가 탈기독교화 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 이유로, 1)2007년 78.4%에 달했던 크리스천들이 70.6%로 감소 2)밀레니엄 세대 중 1/3 이상이 어떠한 종교와도 연결을 갖지 않고 있고 3)무신론자들(Nones) 역시 2007년에 비해 6% 증가했기에, 드디어 미국사회에 종교 지형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주류 정통 교단은 급락하고 있는 반면, 복음주의 교회들은 눈에 띄게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류교단은 이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주의화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퓨리서치 설문 결과의 온전한 분석이다.

먼저 퓨리서치의 발표를 요약해보자.

2007년에 이어 7년 만인 2014년 미국 성인 3만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70.6%가 자신이 개신교, 가톨릭 등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다. 이 수치는 7년 전인 2007년의 기독교인 비율(78.4%)보다 7.8%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자신이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정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답한 비율은 22.8%로 7년 전(16.1%)보다 6.7% 포인트 늘었다. 특히 종교가 없다고 답한 그룹의 나이 평균은 36세로, 복음주의 이외 개신교(52세)나 가톨릭(49세) 등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그룹의 나이보다 훨씬 젊었다.

유대교나 불교, 이슬람교 등 기독교 이외 종교인 비율은 7년 전 4.7%에서 5.9%로 1.2% 포인트 증가했다. 무응답이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0.6%였다.

기독교 세부 종파별로는 개신교(46.5%), 가톨릭(20.8%), 모르몬(1.7%), 정교회(0.6%) 등의 비율이었다. 한때 미국 기독교인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개신교 비율은 51.3%에서 46.5%로 과반에 미달했고, 가톨릭 비율도 3.1% 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이다. 특히 1980년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25%가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1946-64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11%, 1928-45년생의 7%보다, 밀레니엄들이 어떠한 특정 종교와도 연관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복음주의 진영의 해석을 들여다보자.

'라이프웨이'에서 리서치를 담당하며, '크리스처니티투데이'에서 '익스체인지'를 통해 미국 사회 문화나 종교 지형 변화에 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에드 스테저(Ed Stetzer) 박사가 그 선봉에 있다. 스테저 박사는 먼저 사회학자들과 리서치 전문가들(Christian Smith (Notre Dame), Rodney Stark(Baylor), Frank Newport(Gallup), and Robert Wuthnow(Princeton))과의 컨설팅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수치상으로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복음주의화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USA투데이에 기고한 글(Survey fail - Christianity isn't dying: Ed Stetzer)에서, 그는 오히려 미국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점점 더 복음주의적 확신을 가진 준비된 크리스천으로 남아 있고, 이러한 경향으로 미국 교회가 점점 더 복음주의화 되고 있다고 말한다.

팀 켈러 목사 역시, 스테저 박사의 주장을 지지한다. 켈러 목사는 이번 설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 사회에서 경건한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양극화 현상이 문제로, 중간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위임이나 헌신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들을 무종교인이라고 설문에 응답한 결과가 바로 이 사실을 말해준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점점 더 무종교인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결정짓고 있다.

스테저 박사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In a dramatic shift, the American church is more evangelical than ever) 그러면 미국교회가 어느 정도나 복음주의로 심화되고 있는 지를 말해준다.

2013년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스프링교회는 주일에 6,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같은 해 미 성공회는 전체적으로 12,000명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

미국내 주류교단 급감 비해 복음주의적 교회 부흥
무종교인 증가, 크리스천 인구감소는 그대로 진행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가장 행복한 나라 '스위스'

WSJ,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북유럽국가들 상위권 휩쓸어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유엔 산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네트워크(SDSN)"가 최근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47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 6단계 하락해 일본에 추월당했다.

'SDSN'은 2012년부터 매년 국가의 행복도 순위를 발표했다. 올해 행복한 나라 순위 1, 2위는 스위스와 아이슬란드가 차지했다. 지난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덴마크는 3위로 밀려났다. 그 뒤를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이었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민주화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What's the World's Happiest Country? Does it Matter?).

SDSN에 따르면 순위는 경제, 심리, 조사결과 분석, 국가통계, 건강,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평가를 취합해서 만들었다. 그들은 다양한 척도를 사용해 행복 수준을 평가했다. SDSN은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 6가지가 국가 평균 점수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수명, 의지할 지인의 존재 유무,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인식도, 사회 청렴도, 사회관용이다."

2015년 세계 행복보고서는 158개국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행복 수준을 채점했다. 세계 평균은 5.1점이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행복 수준 측정이 유용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런던대학의 윌리엄 데이브스 교수는 영국 신문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보고서는 실업자가 겪는 어려움 등 이전에 간과된 고통을 확인해줄 때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는 사회통제 도구로 전락하기가 너무도 쉽다. 예를 들어 정치적 변화를 통해 행복을 촉진하는 것과 새로운 행동이나 의학적 개입을 통해 행복을 증진하는 것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면 당연히 후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행복의 함정(Happiness)'의 저자인 런던정경대학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는 인지행동치료(CBT)가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일자리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정부의 돈이 절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 제도 또는 CBT를 받지 않으면 장애 급여를 잃게 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 치료를 받게 하기가 쉽다. 그러다 보면 보살펴주고 들어주고 환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치료가 약자에게 닥치는 또 다른 형태의 처벌로 쉽게 변질될 수 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행복 측정 기준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우려에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도 있다. 그들은 행복 수준의 측정이 삶의 질 개선을 계량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SDSN을 이끄는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는 구성원의 번창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를 성취하는 방법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다. 돈만 아니라 공정성, 정직, 신뢰, 건강으로도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다."

스위스인의 행복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쩌면 초콜릿 때문이 아닐까? '가장 행복한' 나라 중 일부는 우울증 치료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특히 아이슬란드가 그렇다.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철학적 의문을 제기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핵심변수: GDP, 기대수명, 지인유무, 자유인식도, 사회청렴도, 사회관용

"사회통제 도구로 전락 우려" vs "삶의 질 개선 계량화에 도움"

빈곤의 악순환...저소득층 아동 성적저조

〈1면에서 계속〉

물론 두뇌의 차이만 가지고 섣부른 추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는 있겠다.

두뇌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다. 두뇌를 개발하려면 유전자와 신체적·사회적·지적 환경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신경과학자들의 주장처럼 두뇌는 '가소성이 있다(plastic)'. 두뇌는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진화했다. 두 가지 상호보완적인 과정이 진화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과정은 '증식(proliferation)'이다. 신경세포인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과정을 말한다. 두 번째 과정은 '가지치기(pruning)'다. 어떤 부분의 연결은 강해지고, 어떤 부분의 연결은 사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경험은 '증식'과 '가지치기' 두 가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초기 개발 단계에는 '증식'이 우세하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서 새로운 뉴런 연결이 더 많이 일어난다. 후기 개발 단계에는 '가지치기'가 더 중요하게 부상한다.

인간은 나이 듦에 따라, 학습에 능한 유연한 두뇌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딱딱해진 두뇌로 바뀌는 것이다. 어린 시절 대뇌 피질은 서서히 두꺼워지는 반면, 사춘기에는 얇아지기 시작한다. '가지치기' 과정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 저소득층 14세 학생들의 피질이 유년기에 두꺼워지지 않은 것인지, 피질이 얇아지는 과정이 사춘기에 일찍 일어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소득뿐만 아니라, 영양상태, 스트레스, 학습 기회, 가정환경 등 저소득층 아동과 고소득층 아동의 경험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이 가운에 어떤 차이점이 피질 두께의 차이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동물 연구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는 있다.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쥐는 탐구하고 학습할 기회가 풍부하기 때문에 신경 연결고리가 더 많아진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환경에서 자란 쥐는 신경 연결고리가 적다.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은 신체적으로도 지나치게 빨리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영양상태는 모든 동물의 두뇌 개발에 영향을 끼친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두뇌의 가소성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이다. 두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학습하고 변화할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 시절은 가장 큰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다. 미국 어린이들 수백만 명의 두뇌 잠재력이 날마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미국기독교 '거룩한 덮개' 역할 아직 유효

〈2면에서 계속〉

바로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단일 교회와 주류교단에 속한 성공회가 어느 정도로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이다. 결국 "미국교회의 복음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스테저 박사는 정의한다.

"복음주의적"이란 말을 정의하는 공식적인 정의는 아직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선교적 그리고 사회적 개혁 노력을 통해 믿는 바를 실천하고, 성경을 궁극적 권위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주의자이다(David Bebbington의 정의).

이번 설문에서, 퓨리서치는 전통적인 방식, 역사적으로 복음주의적 진영에 속한 교단들이나 교회를 복음주의로 상정해 조사했다. 그 결과, 2007년에 26%에서, 25%로 1% 감소했다. 그러나 '베빙턴'의 정의를 도입하면, 7년 전에 비해 미국인들은 더욱 복음주의자들이 되고 있다(59.8 to 62.2 million). 따라서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감소된 반면,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하는 크리스천들은 완만한 점증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기독교가 뚜렷한 복음주의적 성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해석한다.

또 하나의 여론 조사 결과(2014 General Social Survey) 역시 미국 사회의 종교 지형변화, 즉 주류교단에서 복음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2년에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빈도수는 주류교단(8.6%)나 복음주의(7.9%)가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 복음주의자는 12.5%는 수직 상승했고, 주류교단은 3.6%로 하락했다.

결론으로, 미국 종교 지형변화는 앞으로도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무종교인의 증가와 크리스천 전체 숫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앞서의 뉴스프링교회와 같이 복음주의적 대형교회의 사역이, 어떠한 역사적 주류교단 교회들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복음주의 교회는 오히려 선교와 복음 전도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후보자 인격과 신앙에 달려있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치와는 구별되는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후보자의 인격(46%)과 종교적 신앙(45%, 미 평균보다 5배 이상)을 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정치적 경험 그리고 쟁점 정책들에 대한 입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회심한 크리스천들(1/6은 복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성인들에 비해, 후보자들의 신앙을 우선시하고 있다(22% vs. 3%). 그러나 후보자의 인격(6% vs. 12%)이나 연설능력(3% vs. 7%)에는 비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바나리서치가 이번 설문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한 조사는 바로 "핵심 정책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실시한 정책들 즉 오바마케어, 테러 정책, 이민 개혁안 등에 대해, 양당 후보자들이 어떠한 차별화된 구상을 하고 있는 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경제"가 어떠한 정책들보다도 우선순위로 대두된다. 76%나 되는 미국인들이 민생 안정에 치중하는 후보를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오바마케어가 65%로 과연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지 아니면 개혁될 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민개혁안(46%), 총기규제(43%), 환경보호(37%), 낙태(30%) 그리고 종교자유(28%) 순으로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이나 회심한 사람들은 역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문제(69%)와 함께 종교자유(67%) 영역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낙태(64%)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16%).

연령대에 따른 쟁점 정책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호불호가 갈린다.

△밀레니엄-환경이 최우선이고, 경제, 외교 정책 순 △부머스-외교 정책(52%) 그러나 낙태(26%) △엘더스-경제(86%), 외교 정책(75%), 헬스케어(72%), 이민개혁(69%)

결론으로, 정치 분석가들은 2016 대선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들로 부상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민과 종교적 자유에 대한 양당 후보자들의 입장과 자세 그리고 신앙이라고 분석한다. 여기에 미국 정치에서 항상 쟁점으로 대두되는 낙태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이, 양당에서 예비주자들을 걸러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예비주자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번 설문은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1,025명의 성인에게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오차율은 +/-3이고 95%의 신뢰도).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 (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렉시오 메디타티오(Lectio Meditatio)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손목에 매고, 미간(두 눈 사이)에 붙이고 집 기둥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손목, 미간, 그리고 집 기둥과 바깥문은 눈에 잘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 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말씀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온몸을 드려서 읽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타티오'(Meditatio, 묵상하기)입니다.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음미하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오라티오'(Oratio, 기도하기)입니다.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콘템플라티오'(Contemplatio)입니다. 붙잡고 묵상한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네 단계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말씀묵상'입니다.

말씀묵상은 소의 되새김질과 비슷합니다. 소가 여물에 포함된 모든 양분을 섭취할 때까지 한번 삼킨 여물을 다시 입속으로 되돌려 씹고 또 씹는 것처럼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재에 일부가 될 때까지 말씀을 되풀이하여 음미하며 마음에 각인시키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성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여 말씀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재조명하고 내 삶을 말씀에 따라 조정하는 훈련입니다.

말씀묵상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뜻,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 내 편견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야 합니다. 비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채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과 생각에 채워야 합니다. 이 채움은 '나눔'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나눔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즉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움이 없이는 채움이 있을 수 없고 나눔 없이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는 말씀묵상으로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몸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무서운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던 그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수 비결을 나눔의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경건한 삶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세상을 축복(Blessing)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아흔 살이 넘도록 말씀묵상을 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해져서 말씀을 스스로 읽지 못했을 때에도 그는 사람을 고용해 성경을 읽게 하여 말씀묵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면 지혜로운 사람,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새롭게 경험하며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만 복 받는 자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훈련을 받으시길 적극 권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렉시오 메디타티오(말씀 묵상)의 위력이 어떠한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편 1:2-3).

푸/른/초/장

장영춘 목사
(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

눈을 들어 보니

(창세기 33장 1-20절)

얍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시며 전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 가족을 이끌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백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는 말은 야곱이 더 이상 형이 두려워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믿음으로 형 에서를 담대히 바라보는 표정으로 형을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결과 얍복강 저편의 야곱의 눈이 아닌 이스라엘의 눈으로 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원수로 지내온 형 에서입니다.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가로챘던 야곱,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은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발상이나 꾀를 모두 얍복 나루에서 다 씻어 떠내려 보냈습니다.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후 브니엘의 햇살을 받으며 위골된 환도뼈로 인해 절뚝거리면서 마주오는 야곱이 에서를 바라보는 눈은 과거의 자기중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형이라도 속여서 나만 잘되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못된 생각을 그는 얍복 나루에서 통회의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인 이스라엘에 걸맞는 변화된 눈을 들어 형 에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야곱은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보려고 믿음의 눈을 들어 에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이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내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자기중심의 이기심을 통회 자복하고 새로 변화된 눈을 들어 에서를 바라보자 그에게는 세 가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1. 인간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에서가 4백인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본 야곱은 만일의 경우 에서의 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하였습니다.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전 같으면 야곱은 에서를 바라보기는커녕 눈을 돌리고 어디로든지 숨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족들 뒤에서 에서의 태도를 살피며 도망갈 기회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을 향하여 앞장서서 맞으러 나갔습니다. 야곱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멀리서 에서의 얼굴이 보일 때부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일곱 번 절을 하며 달려 나갔습니다. 일곱 번 절하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자세입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며 형과의 화해를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을 몸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으며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부둥켜안고 피차 울었습니다. 극렬한 애정의 표시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기나긴 세월 동안 피붙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던 쌍둥이 형제를 본의 아니게 떨어져 있게 한 지난날의 모든 원한의 응어리가 한꺼번에 풀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누가 에서의 복수심으로 불타는 마음을 삭혔습니까? 누가 에서의 원한에 찬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 버렸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얍복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부르짖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면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바꾸어 놓으시기도 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미리부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대화에서 에서를 다섯 번이나 '내 주'라고 말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10절)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 나타난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겸손한 태도로 인하여 형과 동생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격조하였던 야곱과 에서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사는 자는 만사가 형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먼저 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공부를 못했으니 가난하고 병들었으니, 못생겼으니 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의 외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형제와 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과 원수 관계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이 먼저 겸손한 자세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물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바로 하려면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질관이 바로 정립되지 못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물질 때문에 인격도, 윤리도, 가정도, 사랑도, 선도, 진리도 모두 짓밟아 버리는 추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재산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동원하여 삼촌의 재산을 자기에게 빼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얍복 나루에서 통회의 기도를 드린 후 브니엘을 통과하면서 야곱의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화친을 물질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550마리의 가축을 형을 위한 예물로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 밑천의 재산을 뚝 떼어서 형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물질보다 형과의 화목이 더 중요함을 자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정ㄹ을 보면 에서가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고 하자 야곱은 '이들은 나의 아들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말한 것은 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합니다.

〈8면으로 계속〉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투 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5년 1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3일 (합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일 ~ 25일 동춘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3월
1일 ~ 3일 예수비전교회(박창흥목사)
5일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
9일 ~ 11일 (합동)태백시찰 연합성회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일 ~ 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4월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일 ~ 29일 화평교회(이재옥목사)

5월
1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7일 소망교회(이정현목사)
18일 ~ 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월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일 ~ 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5일 ~ 17일 온양감리교회(노광현목사)
21일 예우림교회(류병희목사)
22일 ~ 24일 (합동) 남수원노회 교사강습회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7월
1일 ~ 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일 ~ 29일 천마산기도원(옥광석목사)

8월
3일 ~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일 ~ 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21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014년 1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항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겸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효목사)
30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4월
3일 칼빈대학교 · 대학원 채플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월
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품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7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아목사)
27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월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LA 평화교회(김은목목사)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의준목사)

9월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중앙교회(이충일목사)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제목사)
24일 블레싱 샘터교회(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8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0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1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클 블레싱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연수원 강의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2월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밤(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미주 갈멜산기도원 매일 기도성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내 이슬람 문화, 교육, 정치 어디까지 와있는가? (상)

기독교와 이슬람의 혼합 크리슬람, 미국내 교회까지 침투
오바마 정권 이후 샤리아법이 미국 연방헌법까지 흔들어

Chrislam & Sharia Law의 위협!

쓰나미처럼 강력하고 빠르게 미국내 교회들, 학교, 가정 속을 꿰뚫고 들어오는 잘못된 종교와 가치관, 크리슬람(Chrislam, Christian+Islam)과 미국의 헌법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샤리아법(Sharia Law)에 대해 파헤쳐 본다!

먼저 유럽에서부터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크리슬람과 샤리아 법안이 2000년 중반부터 미국 연방부(Federal)와 주(State) 법안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끊임없이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종교의 자유"와 "Civil Rights"이란 명목아래 자신들의 이슬람 종교와 샤리아법을 조용히 미국의 헌법과 기독교 속에 함께 통합하여 동일화 할 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친이슬람 정책이 생겨나면서 2014년부터 공립학교에서는 정식으로 Common Core Standard라는 교육시스템을 모든 공립학교에 들여놓게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 진보된 문화로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이슬람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도록 세뇌교육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를 하거나, 자녀들을 학교에서 빼내어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님의 군사들은 깨어 일어나서 크리슬람과 샤리아법이 얼마만큼 우리들 속(사회, 정치, 가정, 학교, 교회)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지를 깨닫고 모든 주정부들과, 특별히 오바마 정부가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우리의 보이스(VOICE)와 반대의견을 강력히 알려줘야 할 때다.

크리슬람은 무엇인가?

크리슬람은 전혀 다른 하나님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과 이슬람 신앙을 합쳐놓은 것이다. 나이지리아에서 시작된 종교(Nigerian religion)로 유럽과 미국에까지 빠르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종교는 처음에는 Tel Tella라는 사람에 의하여 1970년경에 시작되었다가 다시 1980년대에 같은 이름을 가진 Tel Tella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 선교(The Will of God Mission)"란 명칭과 더불어 크리슬람으로 세계로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을 더 이상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종교를 합치라는 명령을 받고 시작하였다고 한다.

크리슬람은 예배를 토요일에 한다. 기독교인들이 주일(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무슬림은 금요일날 예배를 하기에 중간인 토요일로 한다고 한다. 예배 때 먼저 코란을 펴고 땅바닥에 앉아 알라에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엔 의자에 앉아 하나님께 기독교 방식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며, 예배의 스타일은 각자가 예배 중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크리슬람의 잘못된 대표적 가르침

1.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하며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 또는 알라의 자녀"들이므로 "하나이며 한 종교이다"라고 주장한다.

2.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코란에 있는 알라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며 무하메드, 모세와 예수님은 다들 "훌륭한 예언자"로 믿는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부활절, 라마단(이슬람의 40일 금식기도하는 전통) 때 함께 행사를 가진다.

따라서 크리슬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번역된 코란(Koran)은 본어에는 "Allah"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놓기도 하였다.

크리슬람의 위험

유명한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까지 크리슬람을 "세계 평화" "용납" "받아줌" 등등의 듣기에 멋진 이름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몇년째 더 급격히, 뉴욕의 Ground Zero 모스크에서는 Samir Claiborned와 Shane Salmanvoich 같은 크리슬람 "사역자" 또는 "사역팀"들을 통하여 크리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전파하며 집들을 방문하며 가르치고 있다.

무엇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후, ISIS 테러가 이슬람 가르침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ISIS와 이슬람을 마치 다른 단체처럼 시민들을 혼돈시킬 뿐 아니라, 정부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슬림형제단(Muslim-Brotherhood)에게 계속적인 자원후원과 군사무기 후원을 주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형제단은 지난 2-3년 동안 수 백개가 넘는 교회를 불태우고 그로인해 희생된 무참하고 잔인하게 희생된 성도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지금 ISIS 테러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참혹한 상황들은 그냥 하루 만에 생겨난 테러가 아니기에 앞으로 이슬람과 ISIS 테러가 어떤 영향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칠지 나누겠다.

크리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위험

2011년 2월경엔 휴스턴, 애틀랜타, 시애틀, 디트로이트에 있는 교회들 중 주일(Sunday)에 이슬람에서 가장 큰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모하메드(Mohammad)를 가르치며 코란(Qurans) 을 성경 옆에 놓고 말씀 중에 똑같이 가르쳤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으며, 지금 한국이나 미국도 크리슬람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태이다.

이름만 대면 잘 알려진 사람들이 크리슬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기독교가 이슬람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친분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많은 성도들 및 주위 교회들까지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서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도 형제들로 용납하고 함께 할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며 코란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25번씩이나 나온다며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샤리아법이란?

미국에 헌법이 있다면 이슬람에는 샤리아법이 있으며, 더 나아가 샤리아법에 의하여 이슬람들의 도덕적 행위들 또한 심판을 받는다. 샤리아법은 간단히 말하면 코란과 수나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의 법률이며 또한 이슬람들의 모든 도덕을 가르치는 지침서다.

샤리아의 사전적인 뜻은 "물 마시는 곳으로 이끄는 길"로 진리 또는 알라신에게 다가가는 길이란 뜻이다.

샤리아 법을 이르는 주요 법원들은 코란 외에도 3가지가 더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따른다. 참고로 수나와 하디스는 같은 법으로 취급한다.

△코란(Koran, 모든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기준 책) △수나(sunna, 예언자 마호메트의 언행과 범례를 가르치는 책) △하디스(Hadith, 예언자의 언행록으로 수나를 기록한 책) △이즈마(ijma, 공동체의 합의법) △퀴야스(Qiyas, 유추).

모든 선악의 기준을 코란에서 먼저 찾아 따르며, 코란의 규정에 명문이 없을 때 하디스에 기록된 수나에 따르고, 수나에서도 해당 규범을 찾지 못하면, 이즈마로 가서 찾고, 이즈마에서도 못 찾으면 마지막으로 퀴야스에 의해 처리한다. 목욕, 예배, 순례, 장례 등에 관한 의례적인 규범에서부터 혼인, 상속, 계약, 소송 및 비이슬람교도의 권리와 의무, 범죄, 형벌, 전쟁 등등 법적 규범 및 모든 삶을 포함한다.

이 법적 규범을 어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데, 예를 들어 영국 일간지 Daily Mail은 2011년 5월 미인대회에 나왔던 우크라이나 무슬림 여성이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온몸에 심하게 돌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조사과정에서 무슬림 청년의 고백에 의하면 "샤리아법"에 따라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며 자신은 자신들의 행동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요한계시록에는 전쟁이 2개가 나오는데 계9장의 유브라데강 전쟁과 계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은 같은 전쟁인지요? 아니면 어느 것이 인류 제3차 전쟁인지요? 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풀러톤에서 Bae

A: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하고 살펴보면 유브라데강 유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계9:13-20절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을 붐으로 일어나는 유브라데강 전쟁이요 이것은 두 번째 화를 말하는 전쟁입니다. 둘째는 계16:12-16절의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은 셋째 화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제3차 대전을 사람들이 아마겟돈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류 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계9장 13-18절에 나오는 "유브라데강 전쟁"입니다. 이 유브라데강 전쟁은 전

3차 대전은 유브라데강 전쟁... 적그리스도 나타나 극심한 환난
아마겟돈 전쟁은 후삼년반 마지막 주님재림 직전의 전쟁

삼년반(예수님 부활승천 이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이 지나고 후삼년반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류 1/3이 죽게 될 것이며 이 전쟁은 세상의 모든 첨단무기가 동원되는 아마 핵전쟁이 될 것이며 이 전쟁의 승자가 이 땅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강 전쟁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삼년반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극심한 환난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 살후2:1-4절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누가 예수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한다고 쉬 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후삼년반에 정치권과 종교권과 경제 즉 상권을 다 통합하여 절대 권력으로 온 세계를 마치 김일성처럼 철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는 지상교회들이 핍박을 받아 다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주의 종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666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신자들은 물건을 사기도 힘들 정도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후삼년반(적그리스도의 등장-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주님재림직전의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과 동방에서 모여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의 싸움입니다. 예수아이신 주님이 마치 낙하산 부대처럼 홀연히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쟁에 승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계19:11, 1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를 생포하여 산채로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남은 군사들은 모두 죽어 다 새들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전쟁입니다.

자기 부정과 비하, 멸절과 파괴, 비교와 열등의식에 빠져
부정적 자아상을 품고 신음하는 현대인들
그러나 여기 사랑과 은혜, 꿈과 확신으로 가득한
창조적 자아상으로 최고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
그대는 질그릇 인생인가, 청자, 백자 같은 걸작품 인생인가
연습과 리허설이 없는 한 번 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대, 최고의 인생을 살아라
소강석 지음

317면 / 13,000원

이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설교자
소강석목사가 들려주는 또 하나의 명작!
책을 펼치는 순간,
그대에게 최고 인생의 길이 열린다.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닥다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259면 / 11,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코히스타니(Kohistani)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5개 관련 종족의 통합 프로파일. 코히스타니 부족들은 파키스탄 북부의 스와트 강과 판즈코라 강의 상류 강변에 살고 있으며 인더스 강과 지류의 동부 연안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강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의 코히스탄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파키스탄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와 가장 깊은 계곡, 가장 긴 빙벽 몇이 있다.

영국인들은 1895년경 이 지역을 통치했지만 1947년 파키스탄이 독립하면서 이 나라를 떠났다. 하지만 푸쉬툰족(파탄족)이 그들의 땅을 사들이거나 폭력으로 축출함으로써 오랫동안 코히스타니족을 지배해왔다.

오늘날 코히스탄 지역에 살고 있는 코히스탄니족의 하위 부족들이기도 한 몇 개의 다른 종족들이 있다. 투르발리족, 바테리족, 갈로족, 라즈코티족, 또 코히스타니족 그 자신도 포함된다. 이 부족들은 몇 개의 다르딕 방언을 말하지만 주로 의사소통하는 언어는 파쉬토어로서, 이것은 지배적인 푸쉬툰족의 언어다. 코히스타니족은 강건하고 튼튼한 체격의 용감하지만 조용한 사람들이다.

삶의 모습

코히스타니 부족들은 인더스 강 지류가 형성한 협곡에서 관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더스 강은 바위가 많은 가파른 협곡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관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쓸모없는 경우가 많다. 그곳 사람들은 주로 농부들이거나 목양업자들이다. 경사진 밭에다 곡물을 심으며 밭을 갈기 위해 황소가 사용된다. 강우량은 매우 적고, 따라서 작물은 "쿨"(kuhls)이라고 하는 수로를 통해 관개하며, 이것은 지속적이고 숙련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쿨에 의해 관개를 하는 지역에서 코히스타니인들은 보리와 밀, 수수, 기장, 쌀을 경작하고 감자와 다른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한다. 그들은 단지 1년작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젖소와 염소 떼를 몰고 "이동방목(transhumant)"을 한다. 이 말은 계절이 바뀜에 따라 하나의 목초지에서 다른 곳으로 가축들을 몰고 다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름에 그들은 영구 거주촌을 떠나 소, 염소, 양떼를 몰고 고산 목초지로 이동한다.

주변의 산악지형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이 코히스타니족을 격리되게 했다. 대부분의 정착지들은 소규모 독립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해발고도가 1,000-4,500미터 사이나 되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가족들은 대개 보다 높은 지역의 너덧 군데에 집을 가지고 있다. 단지 겨울에만 그들은 강 언저리의 단란한 마을에서 함께 산다.

코히스타니의 마을들은 몇 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다. 농부들 외에도 대장장이들과 목수들이 있으며, 이들어 파쉬토어를 쓰는 2개 언어 사용자들이다. 또 소작농들과 농업 임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족내혼을 하며 또한 가부장적 사회다. 다른 많은 이슬람 종족들의 관습과는 달리, 여자들은 격리되지는 않는데 이것은 그들이 농사일을 돕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더스 강 계곡을 따라 카라코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코히스타니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다. 파키스탄 사회의 주류권에 그들이 보다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대규모 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것은 남부의 푸쉬툰인들이 유입되도록 고무하고 있기도 하다. 코히스타니족은 푸쉬툰인들에 대한 분개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지방정부의 관료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인더스의 코히스타니족이 자신들의 행정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코히스탄주를 만들었다.

신앙

수백년 전 북부 파키스탄 지역은 주로 불교권이었다. 이후 불교 대신에 힌두교가 들어섰지만 서기 1000년경에 이슬람 신앙이 이 지역에 들어왔다. 그 당시 코히스타니인들은 다신교적인 아리아인의 신앙에서 수니파 정통의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이슬람 이전의 전통 신앙의 흔적들이 아직도 일부 지역에 남아있다. 일부 부족들은 무속신앙(샤머니즘)을 지키고 있으며 신들과 악마, 정령, 조상신과 같은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주술사에 의지해 마법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신령과 접신하며 의식들을 주재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은 그 이름에서 의미하는 대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기독교에 문을 닫고 있으며,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코히스타니 부족들 중 그 어디에도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으며 라즈코티족, 갈로족, 투르발리족 가운데 알려진 성도도 없다. 코히스타니인들의 마음이 진리를 향해 돌아서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와 보다 많은 복음의 노력들이 행해져야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9가지 특징

미국 미시간 주에 있는 대학개혁교회의 케빈 드영 목사가 쓴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9가지 특징'을 문화선교연구원(원장 임성빈 교수)이 최근 번역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드영 목사는 "교회가 성경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며 바람직한 교회론을 갖고 있어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알 수 있는 아홉 가지 지표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드영 목사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개 그런 교회 안에는 '공동체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이 그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그러한 인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묻어버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의 리더들이 절대 바뀌지 않거나 자주 바뀌는 경우 모두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리더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이 든 리더들이 권력에 굶주린 사람이거나 교회에 훈련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바뀐다면 성도들이 리더의 실수를 용서하는 데 인색하거나 교회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드영 목사는 "의사결정 과정에 병목현상이 있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교역자 청빙부터 예배시간, 예배당 카펫의 색깔 결정까지 일일이 관여하며 반대만 일삼는 회중들이 있거나 목회자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 모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선 교역자들이 억지로 사역한다. 드영 목사는 "교역자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지 않고 억지로 일하는 것 같다면 탈진, 갈등, 또는 더 나쁜 일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은 삼위일체나 속죄, 예수 탄생, 부활 등에 대한 말씀을 지루하게 생각한다. 드영 목사는 "건강한 교회의 성도도 사회적 이슈, 재정관리, 결혼, 부모교육에 관심이 있다"며 "하지만 이보다 먼저 죄와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원한다"고 말했다.

목회자와 사모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증거일 수 있다. 드영 목사는 "목회자 부부가 사랑이 없고 관계가 형식적이면 교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목회자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행복한 장소가 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성도 대부분이 모르고, 설교에 일관성이 없으며, 선교사를 전혀 파송하지 않은 것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증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개혁주의 목회자인 마크 데버 캐피톨힐교회 목사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부흥과개혁사)'이란 저서를 통해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 '회심을 경험한 교인이 있는 교회' '성경적인 치리를 하는 교회' 등을 건강한 교회로 꼽았다.

노숙자 대하는 5살 소년, 어른들 울려

미국의 한 와플하우스를 찾았던 다섯 살짜리 소년이 보여준 선행에 전세계가 뭉클해졌다.

지난달 중순 앨라배마주 프랫빌의 한 와플하우스를 엄마와 함께 찾은 조시아 던컨은 남루한 차림으로 식당 안에 들어온 한 노숙자와 마주쳤다.

노숙자의 더러운 옷과 차림이 어색한 소년은 엄마 에바 포크에게 노숙자가 무엇인지 물었다. 노숙(homrless)의 의미를 몰랐던 소년은 노숙자가 뭔지, 가족은 어디에 사는지, 음식은 가지고 있는지 등 세세하게 한참을 질문했다. 그러더니 소년은 엄마에게 노숙자에게 음식을 사주자고 조른다.

노숙자가 식당에 들어와 앉았지만 어떤 종업원도 그에게 뭘 먹을 건지 묻지 않은 상황이었다. 소년의 엄마는 노숙자가 싸구려 햄버거를 먹으려 하자 그에게 베이컨을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했다.

음식이 나오고 노숙자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소년은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다며 직접 노래 기도를 했다. 그러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울기 시작했다. 이어 노숙자도 울고 그 곳에 있던 11명의 어른들이 모두 울었다.

이 같은 사연을 소년의 엄마는 WSFA 12뉴스에 이메일로 제보하면서 "오늘 아들이 한 일은 부모가 되어 가장 감사하게 느낀 일"이라고 말했다. 음식을 먹은 노숙자는 오랜만에 배가 부른 채 자기 길을 떠났고, 남아있던 어른들에게는 감동이 남았다. 그동안 어른으로서 노숙인을 어떻게 대했던지 반성이 남았다.

소말리아서 종족 간 유혈충돌 35명 사망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샤바브의 테러가 만연하고 있는 아프리카 북동부 소말리아에서 종족간 유혈충돌이 발생, 일주일 동안 적어도 35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소말리아 치안 소식통은 이번 충돌이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국경 근처 갈가두드 마을에서 소말리아 부족 민병대와 소말리아 지역 내 에티오피아 종족에서 활동하는 에티오피아 준군사조직인 리유 경찰부대 간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말리아 중부 갈가두드 지역 주지사 후세인 웨헬리예는 "리유 경찰부대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해 공격을 개시했다. 그들은 마을사람들을 공격했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소말리아 정부가 에티오피아 정부와 소말리아에 있는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평화유지군(AMISOM)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소식통들은 전투가 일주일 전에 시작돼 지난달 29일 확대됐다고 말했다. 충돌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번 충돌은 소말리아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연합군과 알샤바브 반군들과의 전투와는 다르다고 AFP는 전했다. 여러 소식통들은 이번 전투가 리유 경찰부대원이 지역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이어 호주 야당도 동성결혼 허용 추진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합법화 바람을 타고 호주에서도 야당이 동성결혼 허용을 추진하고 나섰다.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의 빌 쇼튼 대표는 1일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되 성직자가 주례를 서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당은 연내 하원 표결을 기대하면서 당론과 무관하게 개별의원이 자유의사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집권 자유당에 촉구했다. 쇼튼 대표는 "우리의 법은 위대하고 관대한 국가, 그리고 자유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즈비언인 페니 웡 노동당 상원 원내대표는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허용 국민투표가 호주에 유사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토니 애벗 총리는 결혼제도 개혁이 아니라 경제와 치안문제에 집중하겠다면서 동성결혼 허용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호주 의회는 2004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노동당은 입장을 바꿔 2012년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발의했으나 98대 42로 부결됐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동당 의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야당인 자유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투표했다. 전문가들은 애벗 총리의 당내 입지가 약화된 만큼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권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파피아스-후대 신앙계승 목적, 구전되는 사도들 가르침 기록

"헤르마스의 목자"는 성경의 자의적 해석으로 영적 혼돈 초래

1. 초대교회 - 교부 (4) 속사도 교부 파피아스, 헤르마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교회가 겸손히 받아 교리와 삶의 기초로 삼는 유일한 진리이다. 문제는 심지어 이단과 거짓 교사도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영적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지닌 영적 횡포이다. '자의적 해석'이란 성경의 전체 내용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가려는 시도이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질문: 아직 신약성경의 정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였을까?

1) 교회역사를 보면...

▪ 파피아스

파피아스(Papias)는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다. 다른 속사도 교부에 비하여 그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가 걸었던 삶의 여정이 속사도 교부 폴리캅(Polycarp)의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도 폴리캅과 같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 예수의 가르침과 다른 제자의 행적에 대하여 스승으로부터 직접 생생하게 듣고 배울 수 있었다.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니아수는 두 사람이 평생 친구이자 동역자로 교제하며 지냈다고 하였다. 초대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던 두 속사도 교부는 비슷한 시기에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

파피아스는 스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성경을 잘 알았고 그대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였다. 나아가서 그는 예수와 제자들이 남긴 말을 수집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실천하였다. 그 당시 그들의 가르침이 구전되고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파피아스의 노력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있다.

그 결과 파피아스는 5권으로 구성된 "주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집"이라는 제목의 책을 기록하였다. 그가 수집한 내용에는 훗날 정경에 포함된 것도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그렇다면 파피아스의 열정이 지닌 교회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는 주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사라지면서 그들로부터 구전되던 예수의 교훈이 함께 사라져가는 시기에 살았다. 교회를 책임진 그는 구전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함으로서 후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녔던 그는 구전되는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려는 시도를 겸한 것이다.

파피아스는 이 책의 서론에 다름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내가 장로(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교훈을 나의 해석과 함께 기록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데, 내가 지니고 있는 기억 역시도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당신들에게 확인하고자 한다. 나는 대다수처럼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좋아한다." "장로(사도)에게서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할 것이다. 나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도마, 야고보, 요한, 마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이라 가르쳤는지 물어볼 것이다"(파피우스의 단편모음 I).

파피아스가 예수의 가르침을 해석한 내용을 예를 들어보자.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다. (천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적당한 장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파피우스의 단편모음 III).

안타깝게도 파피우스가 기록한 책은 13세기를 전후에 많이 손실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단편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의 글이 후대 교회 교부들에 의해 읽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헤르마스

헤르마스(Harmas)는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묵시적인 글의 저자로 알려진 속사도 교부 중 유일한 평신도이다. 2세기 전반에 살았던 그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지만 자유인이 되어 자신의 소규모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가 저술한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지녔던 성경관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성도들에게 회개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기록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상을 보았다. 찬란한 옷을 입고 손에 책을 든 한 부인의 모습, 탑의 보습, 그리고 동정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교회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서 이 책에는 수호천사가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계명을 전하는 내용과 열 가지 비유가 수록되었다. 그 내용이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의 책은 나름 초대교회에서 권위를 인정받았지만, 결국 중대한 문제를 지녔기에 향후 교회가 이 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었을까? 그가 성경의 진리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헤르마스는 자신이 전달 받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으로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알레고리(allegory)라는 단어는 '다른 이야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풍유, 우화, 또는 우의라고 부른다. 이는 문학형식의 하나로서, 어떤 내용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암시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독자들도 알레고리 글을 읽으면서 '자의적 해석'을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헤르마스의 글을 짧게 소개하자. "그 여성이 이 말을 마치자 하늘이 닫혔고, 이내 나는 두려움에 온 몸을 떨었고 안절부절하였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일 이것이 죄로 판단된다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허다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앨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으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옷을 입은 나이를 먹은 한 여인이 책을 들고 와서 의자에 앉아 '헤르마르씨 안녕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근심에 쌓여 우는 모습으로 '부인, 안녕하셨습니까?'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 여자 분은 '헤르마스씨,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라고 물었다....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다. '하나님의 종은 이런 일로 인해 정죄를 받습니다. 탐욕을 지니고 악한 행동을 소망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죄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단순하며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온 헤르마스씨에게 이것이 매우 큰 죄입니다'."

헤르마스는 전문적으로 성경이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엿볼 수 있다. 하늘, 화려한 옷, 여인, 책, 의자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의 '자의적 해석'은 독자로 하여금 '자의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후대 교회는 그로 인해 큰 혼동을 경험하였다.

2) 성경이 보인다 - 베드로후서 1장 20-21절, 디모데후서 3장 13-17절

성경은 바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의적 해석'을 시도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속사도 교부 두 사람이 지녔던 성경관의 차이는 후대 교회에 각각 긍정적이며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성경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교회가 지닌 의무이다.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지닌 인간은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의 내용을 철학이나 과학의 진리에 비추어서 해석하려는 시도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도구는 성경 자체이다. 성경은 한 분의 저자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록하셨다. 한 부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성경에 능통하여야 한다. '자의적 해석'은 성경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빈 수레'의 잡음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가정사역 칼럼

이혼가정을 돕기 위한 권면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이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 상담자(권면자)가 대처해야 하는 문제는 이혼자가 겪고 있는 감정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분명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러 오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혼과 사별가정 전문가 노만 라이트는 이야기 한다. 그는 또한 이혼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가장 어려운 상담 상황 가운데 하나는 이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배우자를 도울 때이다. 그들은 상담자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무리 상담자가 훌륭하고 숙련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상담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이혼을 하려고 할 것이다. 대개 이혼을 결심했을 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는 결혼 상담에서 많은 부부들이 그들의 결혼생활을 함께 되돌리고 이혼의 아슬아슬한 순간에서 건전한 관계로 옮겨가는 것을 보아왔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상담자는 거절된 사람과 상담을 할 때 현실적이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종종 거절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술된 책들을 읽고 올 때가 있다. 이것은 자칫 거짓된 희망을 주고, 이혼의 충격을 더욱 악화시키며 해결과정을 지연시키게 만든다.

상담자는 이혼에서 법적인 조치나 그 과정의 어느 정도는 알고, 상담자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고 정직하며, 기독교인 변호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인 질문들에 답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도록 격려해주어야 하며 상담자를 만나러 올 때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단계인지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그가 우울, 슬픔, 분노 그리고 좌절의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부모가정에 대한 사역의 시급성

자녀가 있으면서 한쪽 부모가 없는 가정, 그러한 한 부모 가정을 그동안 편부모가정으로 불러왔다. 편부모 가정의 '편'은 치우치다, '반쪽' 등의 뜻을 지니고 있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의 '한'을 하나(Single)로 인식해 '부모가 한명인 가정'이란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싱글대디, 싱글맘이 등장하고 한부모 가정이 매년 늘고 있지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 이혼, 사별 등으로 한부모 가정이 발생하면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심리적으로 분노, 상실, 실패감, 좌절감, 우울감 등을 느끼며 경제적으로는 수입의 축소와 함께 곤란을 겪으며, 자녀의 이상행동, 학교 부적응 등으로 자녀양육의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편견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이들에 대해 인생 실패자, 인생낙오자로 인식해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부당한 차별을 지원하고 자립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한부모들을 교회 교역자나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이혼은 죄다', '이혼 후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재혼하면 그것도 죄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혼하지 않는다', '이혼하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며 정죄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한다.

구역예배나 친교모임에 싱글맘이 되어 참석하면 남의 남편을 탐하는 여자처럼 생각해 관계를 회피하기 일쑤라고 한다. 심지어는 상담 받으러 교회에 갔다가 목사 사모님으로 부터 목사님을 유혹하러 왔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 어느 누구보다 교회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하는 한부모가정이 죄인으로 낙인찍혀 지금 교회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상처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교회도 변화하는 사회와 같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아흔 아홉 마리의 우리 안의 양을 두고 길을 찾아 나서는 심정을 따라 상처 가운데 갇혀 있는 한 부모 가정을 향해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이민교회로부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사역을 활성화하는데 작으나마 등대의 역할,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해본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예닮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DKoreanchurch.com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ㄴ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2)-기도는 무엇인가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기도는 영적 생명과 연결...영적 성장의 중요부분 차지
창조의 능력은 언어에서...하나님과 대화는 천사도 못해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인간에게 있어 호흡이 멈춘다는 것은 그 육체의 죽음을 의미한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며 살아 움직이도록 한다. 육신의 호흡은 일산화탄소를 토해내고 산소를 들이마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운동이다. 그와 같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뜻은 호흡할 때 일산화탄소를 내뱉듯이 기도하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죄를 회개하고 생명연장에 없어서는 안될 산소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적 호흡을 해야만 건강한 영적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숨만 쉬면 살 수 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람이다. 호흡이 불규칙적이면 병든 사람이요, 호흡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생명과 호흡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듯 신앙생활과 기도는 상호 밀접하게 작용한다. 사람의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은 그가 숨을 쉬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기도생활은 신앙생활과 정비례된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규칙적으로 잘 이뤄지지만 병든 사람은 호흡이 일정하지 않다. 기도생활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처럼 약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병들기 쉽다. 또 자신은 기도하지 않은 채 기도를 부탁만 하는 사람은 자력으로는 숨을 쉬지 못하고 응급실에 누워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는 응급환자와 같다.

그래서 주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하신 말씀은 항상 기도해야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다. 기도생활이 없으면 호흡이 끊어진 사람처럼 믿음이 약하여 결국엔 죽은 영혼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이런 죽은 사람에게 무슨 기대가 있을 수 있는가? 죽은 자에게 자식이 있으면 무엇하고 능력이 있으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어도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듯 믿음이 되살아난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는 보여지는 영적 온도계와 같은 것이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성장하는 만물에게는 모두 욕구가 있다. 식욕이 없으면 죽고, 호흡이 없으면 죽고, 활동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영적 성장에서도 분명한 욕구가 있다. 기도로 호흡하고 말씀의 양식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전도와 봉사활동으로 운동을 하여 균형 잡힌 신앙인격을 유지해야 한다. 기도하라. 기도가 기적을 낳고 성공을 낳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대화) 수단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란다는 뜻이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사59:1-2). 아브라함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기도의 선배들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 받았다. 그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언어'를 주시어 곧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다. 인간 외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주님과 대화할 수 없다. 동식물은 다 인간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식물이 되고 다양하게 이용되어도 불만을 말하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과 동식물의 차이점이다.

주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능력이 '말'이다. 우리는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창조의 능력이 바로 언어에 있는 것이다(눅1:37). 문화도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인격도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누구든지 대화를 나누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적인 됨됨이를 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므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게 하신 것이다. 천사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다만 명령만 수행할 뿐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장면을 많이 본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천사가 하나님과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교제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히1:14)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께 절대로 질문하거나 반문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한 천사는 이미 타락했거나 반드시 타락한다.

이사야 14:14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던 영광의 천사 루시엘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살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 열왕기상 22:20에는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내가 그를 꾀이겠나이다"하고 대꾸했다. 그 즉시 그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40명의 선지자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였다. 천사에게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계속 하나님과 대화했고(창18:22-34), 모세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출19:16-25).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계속 언어를 통해 대화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은 육신이 있기에 천사보다 약점이 많다. 육체라는 약점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다. 그러나 약점이 많은 인간에게는 천사보다 큰 장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특권이다.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분노조절을 위한 절제의 성품키우기 비법

분노조절 실패로 범행까지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춘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도 술에 취해서 늦게 귀가한 형이 잔소리를 하면서 때리자 이에 흥분한 동생이 홧김에 주방의 흉기로 형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분노조절장애의 극단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10대들 가운데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분노조절 장애와 비슷한 '충동조절장애' 환자의 경우 2009년 3,720명에서 2013년 4,934명으로 5년 새 32.6%가 증가했다. 그중 10대 남성이 1,10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10대 여성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10대들이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10대들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10대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한 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 부모들 또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뇌 과학에서도 부모의 분노표출이 자녀의 감정절제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우리의 뇌에는 편도핵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부모가 분노하면 자녀의 편도핵이 자극을 받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뇌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그 바람에 감정을 통제하는 전두엽을 발전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되어 분노조절장애를 겪을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 앞에서 분노하면 할수록 자녀의 분노조절 능력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이야기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영숙, 2005)이다. 자녀는 부모의 성품을 닮아간다. 부모가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을 보여주면 자녀도 절제하는 성품이 자라지 않는다. 결국 부모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자녀의 절제력이 결정된다.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절제의 성품을 감정을 조절하여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고 게으름을 절제하여 꿈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또한 욕심을 절제하여 건강한 마음과 몸을 만드는 유익이 있다.

자녀들에게 절제의 성품을 키워주려면 좋은나무성품학교가 개발한 '절제의 1-3-10 공식'을 잘 실천하면 좋다. 1: 화가 나는 상황에서 '절제'라고 한번 외친다. 3: 숨을 깊게 3번 내쉰다. 10: 마음속으로 천천히 1에서 10까지 센다. 이 공식은 2011년 SBS TV프로그램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양육멘토로 참여하면서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했는데 감정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또한 10대 청소년을 둔 부모와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강의에서도 그 효가가 검증됐다.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이 공식 덕분에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올바르게 훈계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고 말한 사람은 괴테이다. 그만큼 절제의 성품을 갖추기가 어렵지만 행복한 10대의 삶을 보내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성품이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부모들이 절제의 성품을 훈련하고 키워야 한다. "그만 해" 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절제하도록 노력하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다름 아닌 좋은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푸/ 른/ 초/ 장

〈4면에서 계속〉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여종들과 레아와 라헬이 각각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나와서 에서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절을 받은 에서가 "나의 만난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고 묻자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서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하면서 예물받기를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라고 강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야곱의 강권에 못이겨 그 예물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자식뿐 아니라 자기의 소유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이 물질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나의 소유가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전에는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이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니 가진 것으로 족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되시어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을 내려다보며 사는 사람은 가져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물질 때문에 망하고 맙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고 있습니까? 유산을 더 차지하려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형제들, 거액의 보험료를 타려고 배우자를 살해하는 자들, 돈 몇 푼 때문에 이웃과 원수를 맺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질을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은 형제간에 유산 문제로 다투는 자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눅12:15)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4:11, 12)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347)502-2571, Fax.(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낮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패니쉬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좋은목자교회

담임목사: 김신영
주일예배: 오후 2:00
영어예배: 오후 2:00
묵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주일성경공부: 오후 4:00
QT모임: 오전 9:30(화)
Tel.(516)584-4088, www.jounmokchachurch.org
1 West Hill Court Huntington Station, NY11746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목회서신

지쳐만 가는 직분자, 대책은 없는가?

여승훈 목사

"목사님, 교회 일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용히 뒤에서 섬기겠습니다." 필자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다. "목사님,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곳저곳 교회를 방문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필자가 아는 어느 장로님의 고백이다.

현대 교회는 직분자들이 점점 교회 일로 지쳐만 가고 있다. 이렇게 지쳐가는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마치 무거운 바윗돌을 끌고 가듯이 무겁고 힘겨운 분위기로 겨우 간신히 운영되어져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 성도간의 골 깊은 반목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는 형편이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를 향해 끊임없는 헌신의 요청을 하게 되고 성도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되는 헌신에로의 요청이 지나는 세월을 따라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이해타산에 따라 실망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지쳐가는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목회적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가장 먼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한다. 진단과정을 통하여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낸다. 그리고 찾아낸 원인에 대하여 처방책을 세우고 치료를 한다. 교회 일에 대하여 지쳐있는 직분자는 영적인 상태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필자가 묻고 있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것이다. 이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진지하고도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지쳐가는 직분자들에 대한 치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어느 날 아침에 필자가 자동면도기를 사용하면서 조금 짜증이 났었다. 이유는 면도기가 작동은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필자의 아내가 자동 면도기 뚜껑을 열고 쌓여있던 찌꺼기들을 털어내고 깨끗이 청소를 하였다. 필자가 다시 사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분자들이 지쳐가는 배경에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요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요인들 이면에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마치 자동 면도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주어야 하듯이 영혼의 내면을 정기적으로 정화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되지 않은 자동면도기의 특징은 파워를 켜면 작동은 하는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비유해서 헛바퀴가 돈다는 말을 한다.

직분자의 봉사는 위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혼의 내면이 정화되지 못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의 자원들이 차단된다. 주님의 은혜의 자원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열심"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행하면 분주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효과 없는 헛바퀴만 돌게 되는 것이다. 이런 헛바퀴의 연속이 결국 스스로를 지쳐만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모두가 함께 깊이 각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봉사는 봉사자 자신의 경험이나 열성이나 열정이나 내면의 그 어떤 것을 표출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사용해서 봉사의 일을 하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적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다.

새롭게 직분자로 임직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런 새로운 각오로 교회를 섬기려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되짚어 보아야 할 뿌리적 사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분자를 섬겨주시는 섬김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긴 것인가? 요한복음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대 하시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순서를 정해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당부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주목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 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이다. 그렇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그 섬김을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곧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섬김과 봉사의 기본정신이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다. 주님으로부터 먼저 섬김을 받지 않고는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6절을 참조해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므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자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영혼의 내면 속에 지속적으로 풍성히 채우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영혼의 내면에 채워지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을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매일매일 사활을 걸고 들어라! 선포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섬기게 하라. 그러면 교회 일에 지쳐있는 당신의 영혼에 소생하는 새로운 은혜의 힘이 공급될 것이다.

[알림] 1535호 9면에 게재된 목회서신의 필자가 잘못 게재돼 이번 호에 다시 한번 게재합니다. 애독자들과 두 분의 필자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제 8회 글로벌 다민족 연합콘서트 성황

열방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제 8회 글로벌 다민족 연합콘서트가 5월 24일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연합회(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정윤명 목사) 주최로 프레젠 힐 Oak Park Christian Center(담임 Bill Matthews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67:3) 라는 주제로 35여 민족 교회 커뮤니티 700여명이 모여 찬양으로 함께 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의 암흑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했다.

제 8회 글로벌 다민족 콘서트의 미지막 순서에서 Lori cooper독창자와 Ray Buford 목사의 인도로 God Bless America를 합창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회복과 함께 열방의 부흥을 소원하며 성령강림주일에 모인 이번 연합콘서트에서는 베이지역 모든 민족의 복음적 교단소속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의 일치를 이루며 화목과 결속을 가졌다.

이번 콘서트에는 미국 교회가 중심이 돼 한인교회를 비롯 이스라엘 기독교회중과 러시아, 루마니아, 아시아권, 라티노, 아프리카, 태평양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등의 35여 민족이 참여했다.

Ray Buford 목사의 색스폰 특별연주와 Lori cooper의 듀엣과 워십댄스, 버마와 인도네시아,하와이언의 워십댄스, 이스라엘 기독교도인들의 shofar연주, 아프로아메리칸과 라티노교회들의 뜨거운 찬양이 있었으며, Oak Park Christian Center의 다민족의연합성가대의 "알파와 오메가"의 열창이 이었다 특히 한인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오크랜드연합감리교회(담임 이강원 목사)의 "천지창조" 국악찬양은 여러 민족들로부터 뜨거운 갈채와 눈물의 감동이 함께 어우러졌다.

이번 콘서트에 사회를 맡은 Sean Fitzhugh 목사(Oak Park Christian Center)는 미국 주류와 함께 하는 모든 민족의 연합콘서트인 글로벌다민족 콘서트를 통해 모여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서로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명을 나누게 되며 함께 소통하며 뜨거운 감동을 주는 연합 콘서트였다고 말했다. 참석한 여러 민족 성도들도 천국의 부분을 미리 체험하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됐다면서 복음사역도 연합으로 함께하는 사명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콘서트 마지막에는 200여 명이 넘는 다민족 연합 찬양팀들이 캘리포니아 남침례교 독창자 Lori Cooper와 Ray Bufford 목사(콩코드Bethel Baptist Church)의 인도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God Bless America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부흥을 소원했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월넛크릭 GIM교회 담임)는 GIM 주최로 여러 민족 교회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다민족콘서트, All Nations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그리고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면서 10월의 제11회 글로벌국제 다민족 선교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ITS 코리언프로그램 집중강의 '어거스틴 신국론 강독' 강의에서 강사로 나선 조장호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ITS 코리언프로그램 집중강의

강사 조장호 박사, 어거스틴 '신국론' 강독

ITS(총장 이승현 박사) 코리언프로그램(디렉터 김재영 교수)가 주최한 어거스틴 "신국론" 강독 집중강의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에서 조장호 박사(베일러 대학)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강의는 △제1강, 정치경제적 풍요가 한 사회에 궁극적 행복을 주는가, 사회의 정치적 존재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제2강, 번영은 어디로부터 오며 목적은 무엇인가? 기독교사회의 이상은 무엇이며 땅위에서 구현가능한가?

△제3강, 사회의 문화적 내러티브와 복음진리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회의 갈망에 복음은 어떤 답을 제시하는가? △제4강, 기독교인은 어떤 신학의 틀로 역사를 이해하는가? 세속적 철학적 이해와 어떤 점이 상충하는가?

△제5강, 성경의 궁극적 저술목적은 무엇인가? '예언과 성취'의 도식은 성경과 역사를 어떻게 연관짓는가? △제6강, 종말론과 현실주의 사이, 신자의 위치는? 신자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뜻은 무엇인가?

△제7강,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도, 철학이 말하듯, 행복인가?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찌 해석되어야 하는가? △제8강, 기독교 신앙이 내다보는 '인류와 세상'의 완성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 비전이 세속적 유토피아를 어떻게 교정해주는가?

△제9강, 하나님의 도성과 코리언 디아스포라, 그리고 천사들의도시! 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과 "신국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제2회 음악경연대회 및 제1회 기독교교육 심포지움

전유니버시티 주최 샬롯장로교회에서

전유니버시티(Chun University) 제2회 Music Performance Competition 및 제1회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심포지움이 지난달 31일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에서 열렸다.

전유니버시티가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 이번 음악경연대회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기량을 겨루었으며 1회 때 심사를 맡았던 음악계 거장들이 이번에도 수고했다.

경연 후에 열린 제 1회 기독교 교육 심포지움에서는 CiRCE Institute의 Dr. Brian Phillips와 East Coast Bible College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인 Rev. Joyce Miles, Chun University 교수 Dr. Barbara Peacock이 강사로 나서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젊은이들을 양성해야 함을 역설했다.

3시부터는 경연 입상자들이 콘서트를 펼쳐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선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2015년 그레이스대학교&신학교 봄학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5월9일 성황리에 열렸다

그레이스대학교&신학교 2015년 봄학기 학위수여식

코리언프로그램 문화교류학박사 8명, 목회학박사 1명

그레이스대학교&신학교(총장 빌 카티프 박사) 2015년 봄학기 학위수여식이 지난달 9일 오전 9시 본교 메너한 오소패딕 캐피털센터에서 성황리에 거행했다. 금년 학위수여식에서는 코리언프로그램의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취득 자 8명과 1명의 목회학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됐다.

한편 본교 코리언프로그램 학위수여자들은 학위수여식 이틀 전인 7일 오전 9시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문발표회를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KCCD 제8회 National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 백악관 브리핑 결과 보고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KCCD, 백악관 브리핑 등 결과 보고

제8회 National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KCCD(회장 임혜빈)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DC에서 열렸던 제8회 National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 백악관 브리핑 결과 보고를 5월 28일 오전 9시30분 KCCD사무실에서 가졌다.

이번 브리핑결과보고는 150여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선출의원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와 다른 커뮤니티가 해결해야하는 중요 사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협력방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13개 주를 대표하는 49개의 도시로부터 온 참석자들과 미국 내에 살고 있는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참가자, 그리고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온 참가자들까지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박준호 기자〉

남부개혁신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휴스턴 남부개혁신대 졸업식

지난 5월 30일 오후 4시에 열린 남부개혁신학대학(원) 휴스턴 본교 졸업식에서 LA 캠퍼스 전 프레지던트 김회창 박사가 설교자로 초청됐다. 김회창 박사는 휴스턴 뉴라이프처치에서 거행된 예배에서 "나사렛사람이라 칭하리라(He Will be called a Nazarene)"(마2:19-2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사장 Dr. Andrew K. Lee로부터 LA에 학교 설립 인증서를 수여받고 지난 1년간 창립 및 학사보고를 했다.

LA 남부개혁신학대학(2975 Wilshire Blvd., #415)은 6월 1일 여름학기를 개강했다. 30여명의 박사 교수진을 확보했다. 학사, 석사, 박사(문화소통학, 선교학, 목회학) 과정 입학문의는 bostonch@hotmail.com 혹은 (213)219-0649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남부개혁신대〉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설교 주제잡기 세미나

설교클리닉(뉴욕회장 황동익 목사, 뉴저지 회장 정성만 목사)이 주최하는 설교 주제잡기 세미나가 6월 16일(화)부터 18일(금)까지 나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뉴저지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서상국 목사이며 주제는 '성경 난해한 구절 해석'. 회비는 교재와 점심 포함 50달러. 뉴욕 거주자들을 위해 겟세마네교회에서 오전 9시 출발하는 차편이 있다.

▲문의: (917)693-2763이지용 목사

국제전도폭발 훈련 무료교육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 국제전도폭발 훈련팀(팀장 전승현 장로)이 자비량으로 진행하는 전도폭발훈련 교육이 6월 13일(토)과 14일(주), 20일(토)과 21일(주) 4일간 심령이가난한교회(담임 이종태 목사)에서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주일 오후 2시. 훈련 교육내용은 1과 평신도 무장하기, 2과 전도를 생활화하기, 3과 친구만들기, 4과 간증 나누기, 5과 진단질문 사용하기, 6과 은혜와 인간, 7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8과 믿음, 9과 결신 초청하기, 10과 새신자 제자삼기, 11과 모집하기와 확대하기, 12과 반대의견 다루기 등을 공부한다. 또 전도와 양육 시범, 현장전도와 간증 등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교육된다. ▲문의: (917)386-8852

"자기감정 자각과 전이감정" 세미나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운영하는 '좋은 엄마들의 모임'이 "자기감정 자각과 전이감정"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강사는 임옥순 실장(패밀리터치 상담실장, D.C.C)이며 일시는 6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하크네시야교회(구 뉴욕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없다. 한편 '좋은 엄마들의 모임'은 여름방학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쉰다.

▲문의: (917)698-6065

제미장의사 장소 이전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의 장례자문위원인 제미장의사(리온 제이미)가 5월 27일부터 장소를 이전했다. 새주소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11358

▲문의: (718)461-2660, 812-1184

청교도복음연구회 제 5회 정기세미나

청교도복음연구회가 주최하는 제 5회 정기세미나가 "청교도와 예배"라는 주제로 6월 6일(토) 오전 10시 뉴욕 영림교회(담임 김필식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예배 설교는 최창섭 목사가 하며 칼빈과 예배(윤성태 목사), 마틴 로이드 존스와 예배(김준희 목사), 청교도의 예배(김경옥 원장)의 강의가 있게된다. 강의 후에는 맨해튼 세인트폴 채플과 트리니티교회, 그라운드제로, 프라운스 뮤지엄 등을 방문한다. 회비는 점심 및 탐방비로 25달러.

▲문의: (917)399-6754, (010)2816-3475(카톡 및 보이스톡)

"하나님의 피리부는 사나이! 제시유 플루트 성가 독주회"

라스반데라 크리스천학교가 주최하는 니카라과 천사어린이 합창단 후원 콘서트 "하나님의 피리부는 사나이! 제시유 플루트 성가 독주회"가 7월 12일(주) 오후 5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출연은 제시유와 피아노 이민혜, 바이올린 유안나, 첼로 김경수, 소프라노 황윤미.

▲문의: (917)588-2020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외총회 2015년도 강도사 고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총회장 엄기환 목사)가 2015년도 강도사 고시를 공고했다. 일시는 9월1일(화) 오전 9시30분 뉴욕총신대 뉴저지분교에서 치러진다. 고시청원서, 졸업증명서, 노회장 추천서, 이력서와 응시료는 500달러. 고시과목은 제출과목(논문, 주해, 설교), 필답과목(조직신학, 헌법&정치, 교회사), 면접 등이 있다. 서류제출기간은 8월 10일.

▲문의: (718)445-0362, (201)952-5718

퀸즈장로교회 연례 봄 선교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연례 봄 선교바자회가 '함께 하는 선교' 주제로 지난달 30일 본 교회 주차장과 지하 친교실 등에서 열렸다. 바자회 시작에 앞서 선교회 회원들은 지하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담임 김성국 목사는 "심는 대로 거둔다"(시126:5-6) 제목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성경의 원리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퀸즈장로교회가 봄 가을로 여는 선교바자회는 의류와 생필품부터 각종 먹거리까지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동 바자회 수익금은 캄보디아와 카작스탄, 케냐 등 선교지와 단기선교팀 후원을 위해 사용된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이날 각 선교회 회원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사진은 김성국 목사와 사라선교회 회원들이 포즈를 취했다.

〈유원정 기자〉

2015년 할렐루야대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덕 회장이 답변하고 있다.

"성공적 대회 치르도록 최선 다하겠다"

2015년 할렐루야대회 관련 기자간담회

2015년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로 예정된 가운데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이 1일 정오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할렐루야대회와 관련, 성공적 대회를 치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이재덕 회장은 2010년도 이후 할렐루야대회가 저조한 성적에 그치고 있는데 대해 "1세대 목회자의 은퇴로 이민교회가 하향화 추세를 보이고 뉴욕교계 전반에 걸친 침체 분위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영향이 할렐루야대회에도 이어져 왔다"면서 "할렐루야대회를 기점으로 뉴욕교계의 큰 변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의 질문은 올해 할렐루야대회가 기존의 관성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내용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성공적인 대회가 진행되기 위한 필요 요건과 준비 상황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미래준비위원회(가칭) 설립, 대회선언문에 동성애 관련 문구 삽입, 준비기도회 반주자 준비, 인원동원, 작은 교회 협력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재덕 회장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여러 차례 강사에게 뉴욕교계의 영적인 현황과 올해 할렐루야대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자'는 올해 대회 주제에서 보여지듯 뉴욕교계에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던져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하고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치렀던 할렐루야대회의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덕 회장을 비롯, 이종명 부회장, 박영진 부회장, 김희복 총무, 한기술 서기, 권캐더린 부회계 등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큰 부흥 경험하는 할렐루야대회 되게 하자"

할렐루야 2015 대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

할렐루야 2015 대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28일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이재덕 목사는 "뉴욕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할렐루야대회를 지켜내자"고 말하고 "포스터 부착을 시작했으며, 각 언론을 통한 광고와 회원교회 순회 및 초청, 대회순서 배분 등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도회는 황영송 목사(청소년분과) 인도로 김정길 전도사의 찬양인도, 기도 김상태 목사(대회문서분과), 성경봉독 김정숙 목사, 설교 최창섭 목사(고문), 특별통성기도, 광고 김희복 목사(총무), 축도 신현택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뉴욕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는 역대하 7장 14절을 본문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는 할렐루야대회"라는 주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매년 해오는 할렐루야대회의 중요한 초점은 '부흥'이 본질적 문제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사 자체로 끝나게 된다"며, "큰 부흥은 첫째, 예수 영접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 죄 회개와 변화된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또 "본문의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초심으로 돌아가 교만을 버리고, 할렐루야 대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강퍅한 심령이 깨지고 가정과 교회, 한인사회와 뉴욕이 회복되고 고침 받는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원주민선교와 네일협회를 위하여(인도 주영광 목사)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북한 억류된 임현수 목사 소환을 위하여(인도 박태규 목사) △할렐루야 2015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강사 소강석(성인), 청소년, Joe F. Kim(어린이) 목사를 위하여(인도 현영갑 목사) △할렐루야 2015대뉴욕복음화대회 진행을 위하여:온 교회와 성도들의 참가, 날씨, 안전사고, 대회 후원을 위하여(인도 권캐더린 목사)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할렐루야 2015 대뉴욕복음화대회는 6월 26일(금)부터 28일(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된다.

〈유원정 기자〉

2015년 북미원주민 연합선교 훈련시작

5월말부터 8주간...단기선교는 8월 2-8일

2015년 북미원주민 연합선교가 오는 8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간에 걸쳐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미시건 등지에서 펼쳐진다.

북미원주민선교회(회장 김수태 목사)는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선교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 단기선교를 실시해왔다. 물론 원하는 성인들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단기선교를 위해 5월 31일부터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8주간의 훈련을 하게 된다. 참가비는 일인당 450달러(둘째부터 350달러).

선교회 측은 매년 북미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뿐 아니라, 단기선교 참가 청소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교 비전을 갖게 되는 결실을 보게 된다고 소개했다.

동 선교회는 2년전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 산하 원주민분과위원회(위원장 김기호 목사)로 들어와 뉴욕교협의 후원을 받고 있다.

북미원주민선교회는 참가자들의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김기호 목사(636-763-4211)나 샘 리 목사(917-648-6659)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리폼드신학교 제5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졸업생과 교수들이 기념촬영 했다.

"작은 일에도 성실...착하고 충성된 종 돼라"

뉴욕리폼드신학교 제5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New York Reformed Biblical Seminary, 학장 유상열 박사) 제5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이 5월 31일 오후 6시30분 본교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생은 목회학석사(M.Div) 김정길, 김광섭, 김경희 등 3명으로 뉴욕리폼드신학교는 현재까지 목회학석사 11명, 신학사 9명 등 총 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예배는 김승민 목사(교수)의 사회로 박이스라엘 목사(객원교수) 말씀봉독, 김금옥 전도사 찬양, 유상열 목사(학장) 말씀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학위 수여식은 최호익 박사(총무처장) 학사보고, 유상열 박사 학위수여, 이종명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권면, 김영환 목사(뉴욕목사회 부회장) 축사, 김영환 집사 축가, 김정길 전도사(졸업생 대표) 답사, 기념품 증정, 김승희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예배에서 학장 유상열 목사는 '충성의 열매'(마25:14-2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의 인생 빠르게 지난다. 졸업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듣기를 원하는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찰나의 순간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졸업생들은 세상과 구별된 원칙, 존재의식, 가치관을 가지고 살며 본문 말씀과 같이 작은 일에도 성실성을 인정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이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졸업생 대표 김정길 전도사는 "그동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이 울타리가 간섭이 아니라 저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이 곳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알게 됐고 또 믿음의 학우들도 얻게 됐다. 학우들과는 전우애와 같은 깊은 감정이 넘친다. 한국에 가서 병환 중에 계신 어머니께 이 졸업장을 보여드릴 것이다. 승리를 향해 함께 가는 졸업생들이 되겠다"고 답사했다.

RBSNY는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Education Department의 허가를 받아 2004년 1월 8일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신학교육기관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 총회 인준을 받아 미주동부노회가 운영하는 사역자 양성기관으로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전수한다.

모든 졸업생은 총회가 인정하는 NYRBS 학위를 받게 되며 남녀 목회학석사(M. Div)과정 이수자는 총회 헌법 절차에 따라 미주동부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한편 NYRBS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는 한국 총회 산하 노회로 이명이 가능하다.

〈유원정 기자〉

교회회복...행복한 성도의 공동체 마을

좋은마을교회 개명하고 '좋은마을축제' 개최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는 2015 좋은마을축제를 5월 31일 오전 11시45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신원규 목사는 "좋은마을축제는 교회회복이고 행복한 성도의 공동체 마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사역을 펼쳐나갈 것"이라 소감을 밝혔다.

좋은마을교회가 주최한 2015 좋은마을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신원규 목사는 인사말에서 "좋은마을교회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탄생하게 됐다. 크고 화려함보다 삶의 질이 행복하고 평화로움이 넘치는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식구와 자매들이 보고 배우고 인격적인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배출하면서 성경 속에 주님이 보이신 가정과 교회의 참 모습을 세워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날 행사는 주일예배, 먹거리 시식, 게임, 책 판매, 사물놀이, 마술, 경품추첨 등으로 이어졌다. 신원규 목사의 사회와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영상나눔 시간, 벽돌성가대의 찬양과 80세 이상 성도들로 구성된 면류관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신원규 목사가 '행복한 마을'(시150: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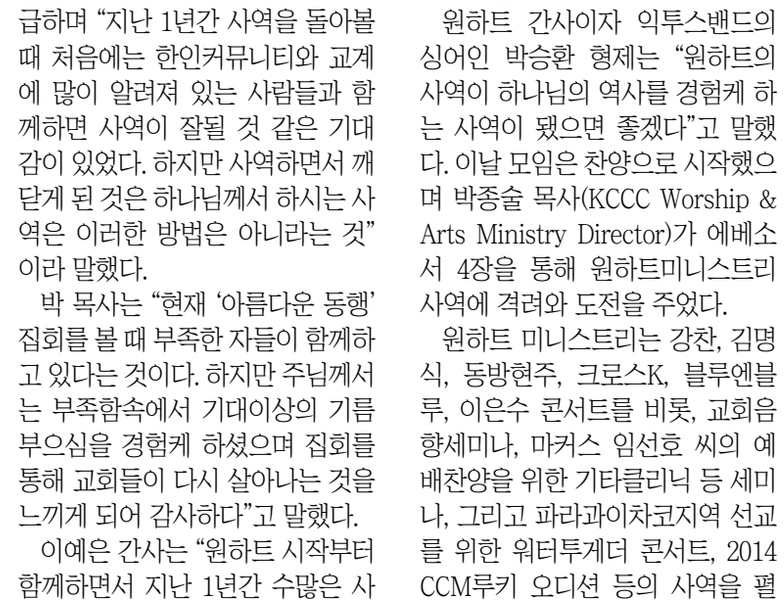
설교에 이어 이지선 자매(UCLA 사회복지 박사과정)가 '삶은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으며, 가주하원의원 영김 의원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좋은마을교회는 지난 1984년 9월 신원규 목사가 27명의 성도들과 함께 삼성장로교회를 개척하고 사명을 감당해오다가 지난 4월 5일 교회 이름을 '좋은마을교회'로 개명했으며, 현재 위치인 브레아, 요바린다 지역(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로 이전했다.

좋은마을교회의 주일예배는 1부 오전 7시30분(한국어), 2부 오전 10시(영어), 3부 오전 11시45분(한국어)이며, 새벽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30분, 토요일 오전 6시, 그리고 매주목요일 오후8시에 목요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714)646-9259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원하트미니스트리 1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부족함속 기대이상의 기름부으심 경험"

원하트미니스트리 창립 1주년 모임 가져

원하트미니스트리(이하 원하트 대표 피터박 목사)는 창립 1주년 맞이 화요모임을 5월 26일 오후 7시 KCCC에서 가졌다.

피터박 목사는 현재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매주 개척교회와 소형교회를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있어 1주년모임에 대해 성대하게 준비하면 사역의 집중도가 반감될 수 있기에 조촐하게 열게 됐다고 언급하며 "지난 1년간 사역을 돌아볼 때 처음에는 한인커뮤니티와 교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사역이 잘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사역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러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라 말했다.

박 목사는 "현재 '아름다운 동행' 집회를 볼 때 부족한 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함속에서 기대이상의 기름부으심을 경험케 하셨으며 집회를 통해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예은 간사는 "원하트 시작부터 함께하면서 지난 1년간 수많은 사역을 돌아보면 원하트가 1년밖에 안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청년연합집회와 개척교회를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 동행' 집회에 참여하면서 한인 1세 1.5세가 함께하는 예배가 이곳에서도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 원하트를 통해 크리스천문화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진원 간사는 "원하트에 함께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사역에 함께하면서 느끼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1주년을 맞이한 원하트가 원하트의 1처럼 하나가 돼 나아가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하트 간사이자 익투스밴드의 싱어인 박승환 형제는 "원하트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찬양으로 시작했으며 박종술 목사(KCCC Worship & Arts Ministry Director)가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원하트미니스트리 사역에 격려와 도전을 주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강찬, 김명식, 동방현주, 크로스K, 블루엔블루, 이은수 콘서트를 비롯, 교회음향세미나, 마커스 임선호 씨의 예배찬양을 위한 기타클리닉 등 세미나, 그리고 파라과이차코지역 선교를 위한 워터투게더 콘서트, 2014 CCM루키 오디션 등의 사역을 펼쳐왔다.

현재 작은 교회를 순회하며 '아름다운 동행'집회를 열고 있는 원하트는 오는 8월 29일 2015 CCM루키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더텐트 콘서트가 이음카페에서 열렸다.

더텐트, 이음카페에서 첫 콘서트

이정열, 최윤영, 헤븐스밴드, 캘빈 박, JF 마크 등 공연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는 이음카페에서 콘서트를 5월 30일 오후 8시에 가졌다. 이번 콘서트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열어왔던 파킹랏을 벗어나 열게 된 첫 번째 공연이었으며, 지난 2014년 12월에 있었던 이음카페에서의 콘서트 개최 요청으로 마련됐다.

헤븐스밴드 리더인 최천국 전도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CCM가수 이정열 씨가 '그 피가'와 드라마 '베토벤바이러스' OST '들리나요'를 찬양으로 개사해 불렀으며, 색소폰 연주자 캘빈박 씨와 재즈플룻연주자 JF 마크 씨의 연주, 그리고 CCM가수 최윤영 씨의 무대와 헤븐스밴드의 무대 그리고 최윤영 씨와 헤븐스밴드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등으로 엮어졌다.

이음카페를 자주 찾는다는 김현준 씨는 "오늘 공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며, "처음에는 라이브 음악감상을 하며 컴퓨터작업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출연자들의 공연을 보면서 작업보다 공연에 집중하게 됐다. 1년여 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와 어떤 뮤지션들이 있는지 잘 몰랐다. 하지만 오늘 공연을 통해 실력이 뛰어난 아티스트들을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음카페 매니저인 박상진 목사는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의미로 지난해 8월 카페를 오픈했다. 그동안 이곳에서 여러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그동안 열었던 공연 중 오늘 텐트 공연이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과 맞아떨어졌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더텐트의 공연이 이곳에서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텐트는 오는 7월 18일(토) 가주영어학교 주차장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한국의 크리스천 인디밴드 '사운딩 라이츠' 공연을 갖게 된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제3회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효사랑선교회가 주최한 글짓기 및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13일(토) 오전 10시 플러톤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린다. 참석 전원에게 참가상과 수상자에게는 영김 하원의원이 수여하는 상장과 특별상으로 OC원로목사회 회장상도 준비된다.

▲문의: (562)833-5520

'사모님 Blessing Night'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가 주최하는 '사모님 블레싱 나잇'이 6월 11일(목) 오후 6시 Holiday Inn Buena Park Hotel에서 개최된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회 담임목사 사모, 부목사 및 선교목사 사모, 원로목사 사모 그리고 특별히 홀사모들을 초청한다. 등록은 8일(월)까지이며 선착순 150명. 카톡이나 문자, Qsong405@gmail.com

▲문의: 714-699-0210, (714)615-9191

부모님선교회 창립 9주년 감사예배

사우스베이 부모님 선교회(대표 박웅기 목사) 창립 9주년 감사예배를 6월 21일(주) 오후 5시 성서장로교회(1655 W. Maline Ave. Gardena)에서 드린다. 강사는 김현수 목사(토랜스 선한목자교회 담임)

▲문의: (310)515-7207, (562)417-4869

디지털 목회 위한 컴퓨터교실 개강

월드비전 센터(원장 장재언 목사)는 디지털 목회를 위한 목회자중심 컴퓨터 교실을 개강한다. 15일(월) 오전 9시30분에 개강하는 이 클래스는 설교와 예배, 성경공부에 필요한 프레젠테이션(파워포인트)을 비롯한 목회통신을 위한 메일머지와 메시지 발송요령 등을 공부한다. 1주 1회 8주 코스. 등록비 100달러(교재CD 포함), 강의 장소는 905 S. Euclid St 108호실.

▲문의: (714)353-1992

목사회의 초청을 받아 한자리에 모인 목사회 임원들과 증경회장 부부.

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단 초청 및 월례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는 지난 25일 웨스턴 소재 Dream(몽) 식당에서 목사회 전직 회장들을 초청 식사를 대접하고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영구 목사 사회로 기도 엄규서 목사, 성경봉독 고재원 목사에 이어 홍영환 목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17)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홍 목사는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가 종의 신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소명 받은 사람들이다. 끝까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강권했다. 이어 목사회가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교제와 모임의 시간을 가졌다.

〈이성자 기자〉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전문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 오전 9:30~오후 8:00

- 기독교서적
- 기독교용품
- 일반서적
- 서예용품 전문
- 2016년 달력제작

CJ 택배 한국으로 택배 / UPS 미국내 택배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전세계 500여 선교사 한국서 영적 재충전

제41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 7000여명 참석

전 세계 64개국에서 5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모국을 찾아 한자리에 모였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대성전. '순종의 선교 하나님의 꿈'을 주제로 한 제41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가 선교사와 자녀 등 570여명을 비롯해 총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카자흐스탄 몽골 등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차려 입은 알록달록한 색상의 사역지 전통 의상은 예배당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고국을 방문한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며 "(선교사역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이어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총재 조용기 목사는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 믿음의 철학으로 굳건히 무장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권면했다.

29일까지 이어진 선교대회에서는 선교사들의 영성 회복과 휴식, 충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영산수련원에서는 '전체 선교사 수련회'와 '선교사 자녀 캠프'가 열리고 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저녁 9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미스바 7시간 철야기도회'도 열렸다. 선교사 부부를 대상으로 한 1·2차 건강검진도 진행됐다.

한편 6월 4-5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최로 '제1회 시니어 포럼'이 진행됐다. 지난 40여년간 이어져온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세계선교 사역을 회고하고 미래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순복음선교회 회고와 전망' '순복음 해외 신학교 영역' 등을 주제로 발제와 특강, 토론이 열렸다.

"생명은 신의 영역…가족이 결정할 수 없다"

정부·국회 '존엄사법' 입법 추진 교계 우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존엄사법'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교계에선 무분별한 법제화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은 28일 "연명치료 중단의 절차 등을 담은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존엄사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와 조율해 이 법안을 만들었으며 지난 2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존엄사는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의 한 환자가 부인의 요구로 퇴원한 뒤 사망하자 환자의 동생이 의료진을 살인혐의로 고발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2008년에는 김모 할머니의 가족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이듬해 병원 측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려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했다.

존엄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제투여 등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병원에선 환자 본인을 상대로 연명치료 의사를 확인한 뒤 실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확립된 절차는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존엄사 대상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 한정된다.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의식불명 등으로 환자의 뜻을 직접 묻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언장이나 일기장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면 가족 2명 이상의 동의로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기 힘든 경우에도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교계에선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존엄사가 남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관계자는 "생명은 어느 단계에 있든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라며 "절대적으로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면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대리결정토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치료도 효과를 볼 수 없는 말기환자이고 환자가 자기 의사를 자율적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의사들의 중복 진단과 병원윤리위원회의 판단 및 협의의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연명치료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군수도병원 박재형 교수도 "연명치료 중단은 본인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명치료 계획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면서 "단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존엄사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국장은 "생명의 주권은 신의 영역에 있다"며 "환자의 가족은 물론 본인도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명치료에 따른 치료비 부담 등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존엄사가 법제화되면 병원의 제한된 시설과 가족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동성애대책위' 공동구성 "동성애축제 반드시 저지"

한기총·한교연·한장총·미래목회포럼·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은 공동으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동성애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윤재 목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등 5개 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성애 단체들이 오는 9일부터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대구 동성로 등에서 퀴어(성소수자)문화축제를 열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집회신청과 신고를 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연합기관들은 성명에서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비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를 구성해 도덕적, 사회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자녀의 장래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서울시장이 서울시민과 국민 모두의 안위를 위해 동성애 퀴어축제의 장소 사용을 즉각 취소하고 동성애 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는 이영훈(한기총) 양병희(한교연) 황수원(한장총) 대표회장을 상임대표, 이윤재 미래목회포럼 대표와 유만석 언론회 대표를 공동대표로 추대하는 등 임원 명단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동성애 및 퀴어축제 반대 캠페인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동성애는 성 왜곡이요, 중독이다'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발간하고 탈동성애 지향자(동성애를 벗어나고 싶은 이들)를 위한 상담과 보호 및 상담사 양성,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과서 내용 삭제 활동을 벌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만든 인권보도준칙 삭제,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AIDS) 발생원인과 대책·현황 공개 촉구, 동성결혼·동거법 저지와 결혼보호법 제정, 동성애를 조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고 해당 조례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질의와 낙선운동도 검토할 방침이다. 동성애대책위는 이번 주 중 전체 모임을 갖고 '2015 퀴어문화축제'에 대응하기 위한 집회 일정 등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양병희 한교연 대표회장은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선정적 축제와 퍼레이드 등에서 보여준 음란성은 가히 충격적이었다"며 "이런 행사를 열도록 승인한 서울시 실무자는 '업무상 월권'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수원 한장총 대표회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애는 나라가 흔들릴 만큼 무서운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교계 연합기관들이 힘을 모아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先 신고 및 시민 통행 불편 우려"

경찰, 서울 동성애 퀴어축제 거리행진 불허

서울경찰청은 동성애자들의 서울지역 축제인 '2015 퀴어문화축제'의 거리행진과 이를 반대하는 단체의 맞불집회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구 중구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과 제12조에 따라 퀴어문화축제 측에 거리행진 금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퀴어문화축제 측이 신고한 행진 시간과 장소가 앞서 신고된 집회·행진과 중복된다"며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목적 상 서로 충돌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행진장소도 주요 도로여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해 금지했다"고 밝혔다.

퀴어문화축제 측은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및 서울역 방향의 세종대로와 을지로, 소공로, 서소문로 등에서 거리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거리행진을 저지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계획이었다.

또 대구 중구청이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장희종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전했다. 장 대표회장은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과 1일 면담을 갖고 퀴어문화축제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더니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과 대구 중구청의 결정에 대해 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 차별이 아니며 시민과 우리 사회의 가치 및 질서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공권력의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홍호수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무는 "국민과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요소를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동성애자들의 거리행진은 충돌 우려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과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음란·퇴폐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흥 선민교육학부모연합 대표는 "경찰이 바른 처리를 했다"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란 행사는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퀴어 퍼레이드는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학과 사회학의 '상부상조' 강조

실천신학대학원대 개교10주년 및 세미나

"우리 자신과 교회를 폭넓게 이해하려면 사회학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 정재영(종교사회학) 교수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실천신학대학원대 개교 10주년 및 21세기교회연구소 설립 기념 세미나에서 신학과 사회학의 '상부상조'를 강조했다.

'한국교회의 현실과 종교사회학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정 교수는 "과학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신학적 방법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며, 과학의 방법으로 설명할 때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한국교회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신학과 사회학이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 진리를 믿기 때문에 도덕적 우월감을 갖기 쉬우며 배타성이 강해 심지어는 제국주의적 태도를 야기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며 사회와 소통할 가능성을 없애 버려 교회를 게토(ghetto·격리지역)화 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는 종교의 신념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강요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독교 신앙이 사회학을 만날 때 우리 신앙이 더 폭넓은 보편성과 합리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 예배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실천신학대학원대 박종환(예배학) 교수는 '정답'과 '감동'이 있는 예배에 대한 강박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나 예배를 통해 회중들이 직면한 문제들의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답을 주는 설교자에 대한 의존성은 결과적으로 교회에 독이 될 수 있다.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해야 하며, 예배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문제를 해결 받는 것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 무리하게 해석하거나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를 절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성, 제109년차 총회 전주 바울교회서 개최

총회장 유동선 목사, 목사부총회장 여성삼 목사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성결교회' 주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이신웅 목사) 제109년차 총회가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28일까지 전북 전주 바울교회(원팔연 목사)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최됐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성결교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총회 임원 및 관계자, 대의원, 자원봉사자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신웅 총회장은 개회예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총회장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고, 여기에서 빛은 착한 행실을 의미한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성은 지난 1년간 복음 회복 운동을 벌였고 앞으로 그 운동의 열매가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에서 맺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예배에선 성만찬과 '성결교회를 빛낸 성결인들'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 총회장은 기성 교단 소속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우여 부총리, 정의화 국회의장, 최재천(새정치민주연합)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총회에는 송하진 전북지사,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덕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동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 감독회장, 황칭롱 세계성결교회연맹 의장, 나카니시 아사히로 일본성결교회 총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틀째 총회에서 총회장에 유동선(춘천중앙교회) 부총회장을 자동승계 방식으로 추대했다. 또 단일후보인 서기 최영걸(경남 장유교회) 목사, 회계 이봉열(전주 정읍교회) 장로, 부회계 임평재(충남 서산교회) 장로를 당선자로 확정했다.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부서기 선출은 종이 투표와 함께 교단 사상 처음으로 전자 투표를 병행해 진행됐다. 설봉식 선관위원장은 투표 진행에 앞서 "선관위의 결의와 입후보자의 동의를 거쳐 전자 투표 및 종이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도 동의했다.

목사 및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는 각각 3명씩 입후보해 각축을 벌여, 목사 부총회장에 여성삼(서울 천호동교회)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 성해표(부산 예동교회) 장로가 당선됐다. 부서기에는 성찬용(서울 청파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선거는 전자투표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오후 4시에 시작해 6시간 만에 끝났다.

이번 총회에는 외국 성결교회 인사들이 많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제오엠에스(구 동양선교회) 밥 페더린 총재와 세계성결교회연맹 의장 황칭롱 목사, 일본성결교회 총회장 나카시니 아사히로 목사, 인도네시아 성결교회 아구스 산토스 총회장, 인도성결교회 순덜싱 부총회장, 필리핀성결교회 존 웨릭 총회장이 참석했다.

기성은 이번 총회에서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21세기 찬송가는 과다한 저작권료, 애창곡 가사의 임의 수정 등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이미 사용 및 구매 중지를 결의한 상태다.

또 장로 자격에 '이혼 사실이 없는 자'를 추가했다. 이혼이 성경적이지 않고 장로 자격에 이혼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혼선과 분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일래 전 총회장은 "이혼이 장로 후보 본인의 잘못이 아닐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이혼한 이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의원들을 설득하진 못했다.

매년 각 교회가 총회에 내는 총회비는 세례 교인 수에 따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회의 경상비가 기준이다.

'전담 전도사'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안은 부결됐다. 전담 전도사 기간이 길어 교단의 전도사들이 타 교단으로 옮긴다며 목사 안수 조건을 완화하자는 취지였으나 무산됐다.

기성은 또 교단 헌법연구위원 7명과 총회재판위원 7명을 소환(해임)했다. 사회로 볼 때 헌법연구위원은 헌법재판관, 총회재판위원은 대법관에 해당하는 요직이다.

이들에 대한 소환건은 교단의 최대 이슈였다. 지방회 10곳은 '교단법에 관련 조항이 없는데도 총회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이유로 헌법연구위원을, 지방회 4곳은 '교단법에 정해진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2심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위원을 소환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대의원들은 이들 위원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다 표결 끝에 소환을 결정했다. 기성은 제103년차 총회에서도 헌법연구위원장을 소환한 적이 있다.

불교계 "황교안 총리 NO!" … 종교편향 논리로 또 몽니

"기독인·신학대 나와서…" 불교인 공직자엔 관대, 반대 칼날

불교계가 또다시 개신교 고위공직자나 후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종교편향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법보신문 등 불교계 언론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등 불교단체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신학대 출신으로 목회자 과세 부당성 등을 주장한 독실한 보수 기독교 신자로, 종교편향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교계의 종교편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기독교 고위공직자의 신앙고백, 간증, 저서 등을 조사해 '골수 기독교인' 등의 극단적 용어를 써가며 종교편향 공직자로 비판해왔다(표 참조). 김신 대법관, 황우여 교육부장관, 김성이 복지부장관 후보자 등은 사석에서 했던 신앙간증이나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

불교계는 개신교인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종교편향으로 비판하고 불교신자가 되면 즉각 환영입장을 밝히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봉은사 미래위원장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을 때이다. 불교계는 박 시장이 '재가불자(在家佛者)의 귀감' '불교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친불교성향의 시장'이라며 치켜세웠다. 불교계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당선되고 김병관 전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이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 대대적으로 환영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개인 신앙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된다"면서 "오히려 종교편향은 박 시장이 확정·고시한 봉은사역명이나 35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조계사 부근 성역화 사업' 등 정부·지자체가 특정종교에 편향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억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은 "개신교계는 지금까지 불교계 인사가 고위공직자로 임명됐을 때 종교적 이유로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불교는 유령 같은 종교편향 논리를 내세워 '개신교 공직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비판한다. 불교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교 편지

케냐

2015년도 2/4분기 선교소식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 동부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며 귀한 선교헌금으로 동참하여 주시는 교회와 선교회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옵기를 기원 드리며 소식을 드립니다.

지난 분기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군데 교회의 건축들이 완공되어지고,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쳤으며, 새로운 어린이 사역들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총회 세계선교사회의 제2회 GMS 선교사 대회와 선교사회 총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 여기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역과 앞으로 진행되어질 사역들을 소개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의 장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Pastoral Leadership Conference
"Making a Difference"
9-11th February, 2015, Narok Kenya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making a difference"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50여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함께 합숙하며 참여한 가운데 목회자들의 지도력과 목회 향상을 위하여 가진 이번 세미나에 은혜가 넘치었습니다.

금번 세미나에는 미국 리버티 대학의 교수 이셨던 문영주 교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기독론을 강의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제 아들 강충만 목사가 성경적 설교에 대하여 강의하며 세미나를 인도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올 때 한살이던 충만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자기가 자라났던 교회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만 목사의 어린 시절부터 보며 지내왔던 목회자들과 함께 강의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선교의 제2세대를 꿈꾸어 봅니다.

앞으로 이 목회자 세미나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금번 현지 목회자들의 갈망에 문 교수님께서 승락하심으로 매년 나록(Narok) 지역에서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금번에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더욱더 진보되고 발전되어지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실 강사님과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물-예수님의 샘물 만들기

저희들의 복음 개발 사역중의 하나인 "예수님의 샘물 만들기 우물개발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동산교회(김인중 목사님)의 기도와 후원가운데 맛사이 지역에 우물 개발이 시작됩니다. 물을 구할 수 없거나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하는 이곳 현지 사람들을 위한 이 개발 사역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소망입니다.

지난해 연말과 금년 초에 두군데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투루카나 마라나타교회(예수사랑 교회 후원)와 맛사이 올로로필교회(한국 썬스코 후원)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교회가 건축되어 집니다. 키꾸유 루히루 지역에 시온 개혁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미국 시카고 그레이스교회(원종훈 목사님)의 후원과 기도로 건축되어지는데 순조로운 진행과 완공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제2회 GMS 선교사 대회 및 총회

지난 3월 16-20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GMS 선교사대회와 선교사 총회가 있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기간 중 GMS 선교사회 총회가 있었는데 부족한 사람이 총회 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GMS에서 파송 받아 전세계에서 사역하는 2,500 여명의 GMS 선교사님들을 대표하여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부족한 사람이 선교사님들과 본부와의 가교(架橋)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10에서 말씀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저희들의 사역과 가정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금년은 저희 결혼 35주년(4 25일)이 되어지고, 생명과 믿음의 유업인 첫 손자 예준이의 첫돐(3월25일)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초청으로 미국 시카고를 방문하여 손자 예준이의 첫돌을 축복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우리 부부의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미국 동서횡단 자동차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하여 믿음과 생명의 유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선교지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30여년전 부족한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을 하였던 협력교회가 부족한 저희를 파송 선교사로 허입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의 주 파송교회가 되어주신 남서울중앙교회(담임: 여찬근 목사님)의 원로 피종진 목사님과 담임 여찬근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아름다운 선교의 장을 이곳 아프리카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아프리카 케냐에서…

강인중 선교사 드림
New Life Ministry
E-Mail: missionkenya@gmail.com, kang4kenya@gmail.com

선교지 방문기

조항석 목사
(뉴저지 뿌리깊은교회 담임)

아 이 티

아이티는 덥습니다. 여전히 덥고 먼지가 납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훅 하고 더운 바람이 맞아줍니다. 공항 안에까지 마중을 나와주신 탁 선교사님과 삼개월여만의 반가운 재회를 하고 소나피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고아원 세 곳을 방문합니다.

오늘은 열방대학 출신의 아이티 청년 스티브와 그 약혼녀인 러시아 색시 잰나가 동행합니다. 스티브는 산토도밍고에서 김현철 선교사님의 소개로 사귀게 되었고, 두 사람의 8월 결혼식에 저희도 참석하기로 한 사이입니다.

House of Hope

제 딸 아이 위슬린이 있는 하우스 오브 홉은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쌀을 싣고 도착하자 아이들이 뛰어나와 반겨주었습니다. 그중에 몇 아이들이 건물 안쪽에 대고 '위슬린'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키가 또 훌쩍 커버린 것 같은 위슬린에게 제 아내가 지난주에 장장 세 시간이나 쇼핑해서 산 열 벌도 넘는 옷을 입혀 보았습니다. 마침 잰나가 도와주어서 쫄바지, 끈달이 셔츠 원피스, 줄무늬 티셔츠에 핫팬츠까지.... 골고루 입어보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같이 간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이제 멋을 부리려고 하고 자꾸 커 가는데.... 벌써 열 살입니다. 아이가 예쁘게 자라는데도 마음이 기쁨보다 슬픔의 무게가 더해갑니다.

쌀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과자 나누어주고 옷 갈아입느라고 정신이 없는 위슬린 불러서 발 사이즈 재고.... 8월에 오마고 약속하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38 오아시스

따바에 있는 38 오아시스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서른 세 명의 아이들이 올망졸망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픈 아이도 있고, 기운 없는 아이도 있지만 대체로 아이들이 잘 자라서 반갑다고 와서 손을 붙잡고 매달리고 손가락을 만져보고 가고, 박박 깎은 머리를 들이밀기도 합니다.

아직도 한참 더 자라야지만 이제는 제법 쌀자루도 들으려고 하고 더 작은 아이도 안아주곤 합니다. 정말 작은 아이들과 함께 쌀을 나르고 아이들 과자를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장애아 고아원

23명의 장애아들이 있는 여호와 라파 고아원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들을 테라스로 내놓았습니다.

쌀과 식품들을 날라 마당에 쌓고 부엌과 아이들을 방을 살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었는데 아직 저녁을 안 먹었답니다. 하루 두 끼 먹는 아이들이 대부분 오후 3시 좀 넘으면 밥을 먹는데 부엌에 아침 설거지가 쌓여 있고....

원장이 아기들 우유와 마실 물이 필요하다고 잔뜩 쌓아놓은 빈 물통을 가리킵니다. 탁 선교사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고아원 전기값도 지불하였다는데 요구사항은 자꾸 늘어가고 자체적으로 개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 2월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내 눈에 밟히던 5살 여자 아니 매리케트는..... 아이가 보이지 않아서 물었더니 할머니가 와서 데려갔답니다.

매리케트를 남부 지역에 사는 할머니가 와서 데리고 갔다는데 왜 가슴이 먹먹한지... 할머니가 결코 부자도 아니고 남부지역 산을 넘어 어딘지도 모르는데 점점 시력을 잃고 그 아이가 어찌 살지, 그래도 할머니 손에 크는 게 낫지, 하다가도 한숨이 그치질 않습니다.

제 아내도 매리케트를 할머니가 데려갔다는 소식에 낙심이 큰 모양입니다. 눈이 맑은 예쁜 아이였습니다. 점점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여서 병원에 한 번 데려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데려간다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그 사정이야 알겠지만 괜히 원장이 야속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데려갔다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티 시골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아이는 점점 보이지 않는 눈을 어쩌려는지 그저 막막하고 한숨만 납니다.

원장에게 탁 목사님께 우유와 물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쌀을 들고 다니면서 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위슬린도 잘 커서 벌써 여자아이가 되어가고 있고 매리케트도 할머니가 키우겠다고 데려갔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듣는데 오늘은 마음이 더 먹먹합니다. 아이가 자라도 걱정, 할머니가 데려가도 걱정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데 까닭모를 슬픔이 고개를 듭니다.

모든 아이들의 미래가 아직도 보이지 않아서 이 아이들 자라면 어찌 될까 할머니한테 가서 잘 있을까 괜히 슬프고 마음이 짠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그머니 떠미시는 일도 있습니다. 내일은 샬롬(잔 목사), 브니엘, 러브, 가브리엘 네 고아원을 갑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도 슬픈 아이티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메일:chohenry01@gmail.com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상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선교 편지

브라질

브라질은 브라질 원유청(뻬뜨로 브라스)부패 부정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그 여파로 교사파업 운전기사 파업 등 각 분야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데모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1년에 전국적으로 공영버스인 시내버스가 불에 타서 손실하는 가장 많은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세계로 나가는 마약이 거의 브라질을 경유하여 퍼져나갑니다.

세계개혁주의펠로우쉽(WRF) 브라질 총회

세계개혁주의 연합체인 WRF 총회가 상파울로 할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1주간 동안 브라질 장로교단(IPB)의 영접으로 세계에서 약 200여명의 신학교 총장 교단장 교회지도자 등이 참석하여 세계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동성연애, 어린이 성폭행, 이슬람세력의 침투, 남미 카톨릭문화권의 선교전략 등을 다루었다. 한국에서는 대신대학교 김인환 총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하며 대회후 앰부 깜뽀, 림뽀 22주년 생일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또한 동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총신대학 동문회 모임을 가지며 수많은 세월의 추억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교회 생일 어린이 십자가 고난 특별공연

교사 바우끼리아와 데우피나가 어린이전도협회에서 훈련한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들의 불신 부모들을 초청하여 십자가 공연을 하였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어린이들을 연습을 시킨 교사들이 대견하며 자신들의 자녀들의 십자가 공연을 보며 부모들이 주님의 고난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죠나따스(앞줄 가운데 어린이 5세)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공연을 할 때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장래 커서도 자신에게 귀한 추억이 되리라 본다.

아마존 삼국경신학교 양성식 선교사를 초청한 선교의 밤

깜뽀림뽀 교회는 매년 브라질과 타 나라에서 선교하는 한인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성도들에게 선교정신을 고취하고자 선교의 밤을 개최한다. 또한

적은 정성이나마 선교사가 세운 현지 인교회도 선교에 동참하고자 한다. 양 선교사를 초청하여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세 나라 국경에서 신학교사역과 교회 개척사역, 현지 교역자 자립을 위한 농업, 기술, 양어 등 현지 자립 정책들을 들으며 선교의 새로운 패턴을 경험했다.

어머니주일 어머니들 초청 위로 감사

5월 10일 앰부교회와 깜뽀림뽀교회들은 어머니들을 초청하여 위로하며 자녀들이 선물을 전달하며 어린이들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선물을 전달할 때 어머니들은 모두 눈물이 글썽이기도 했다.

노시영 선교사
이메일: nohsiyoung@hanmail.net

주님이세운교회 박성규목사(좌측 두번째)가 김정한선교사(우측)에게 네팔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주님세운교회, 네팔지진피해돕기 성금 전달
SON미니스트리에 4,582달러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지난 26일 네팔지진피해성금 4,582달러를 SON미니스트리에 전달하고 네팔지진 의료선교팀을 통해 '사랑의 빛 보내기 운동의 솔라등'을 현지 난민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선교팀은 SON미니스트리에서 주관하고 세계의료선교회(김인철 목사)와 협력하게 되며 현지에서는 글로벌호프(Global Hope) 단체와 사역하게 된다.

사랑의 빛 솔라등은 김정한 선교사가 케냐선교사 시절 전기가 없는 마사이부족에서 선교를 하던 경험을 살려 SON미니스트리에서 선교용, 재난구조용으로 직접 개발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또한 비자문제가 있거나 선교사업을 원하는 선교지에 공급을 하려는 목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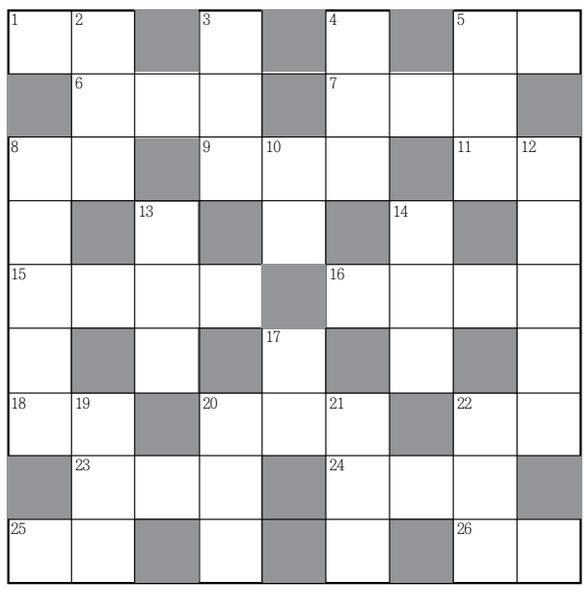
SON미니스트리는 네팔단기선교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랑의 빛 솔라등을 네팔 난민들에게 직접 단기선교팀을 통해 전달하며 이 사역을 위해 교회들의 많은 선교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것은 김정한 선교사(714-350-6957)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십자말 • Cross Word (83)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참된 진리(요8:32).
5. 현세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죽은 후에 가서 고통을 받는 멸망의 암흑세계(마5:22).
6. 아이 부근에 있던 채석장(수7:5).
7. 새벽에 동쪽에 보이는 금성(사14:12).
8. 야곱의 딸 디나가 이곳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 당함(창34:2).
9. 해 그림자의 이동을 이용하여 시각을 측정(왕하20:11).
11. 작은 칼(렘36:23).
15. 삼손이 나귀 턱뼈로 불레셋인 1천명을 죽인 곳(삿15:15-17).
16. 패악하고 불순하여 도덕에 어긋남(삼상20:30).
18. 로마에 있는 교우로 바울에게 부탁하여 디모데에게 문안하였다(딤후4:21).
20. 새찬송가 492장. 열린 ○○○ 내가 들어가…
22. 시브온의 큰 아들(느11:31).
23. 어머니의 남편.
24. 중심에서 둘레까지의 거리가 어느 곳이나 똑 같다(레19:27).
25. 롯과 그의 작은 딸 사이에 낳은 아들(겔25:10).
26. 운수가 좋음(행26:2).

<세로 푸는 열쇠>

2. 야노힘의 몸에서 난 사울의 아들(삼상14:49).
3. 유대인이 하만의 궤계에서 구함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에9:31).
4. 땅과 땅 사이에 경계를 하는 표(신27:17).
5.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두었던 가장 거룩한 곳(출26:33).
8. 소아시아 부르기아도의 한 성(골4:13).
10. 영원무궁한 생명(딛1:2).
12. 이스라엘 백석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호사밧이 임명하여 유대로 보낸 레위인(대하17:8).
13. 앗수르왕 산헤립의 한 아들(왕하19:37).
14. 반역하는 사람(호5:2).
17. 여러 나라(욜3:12).
19. 헬라인에게는 데베스라고 알려진 애굽의 도시(나3:8).
20. 하늘이나 땅이나(신3:24).
21. 나병(눅5:12).
22. 유다 지파의 남부에 있는 성읍(수15:22).

십자말 정답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생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213)215-8523, Fax.(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www.egkpc.org

디아스포라선교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묵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오후 1:00
일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 일 학 교: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비전Acts 1:8 새벽기도: 오전 6:30(토)
중,고,대,청년부: 오후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714)646-928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86)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9)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1)"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Christian Education as Disciple making is the com-mission of church) (2)"제자삼기"의 체인(Chain of Disciple-Making) (3)"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 교육이 가지는 한인교회를 향한 함의(Implic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as disciple making for Korean American church)라는 주제들로,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을 그리스도의 교육 명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기초로서 인식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 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은 교회 전체의 교육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명령"이라고 해석된 영어 단어 "commission"이 "모두"라는 뜻의 "com"과 "사명"이라는 뜻의 "mission"이 합해진 단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도 같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즉,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비단 사역자들만의 그리고 교육부서들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전체가 관여하여야 하는 일이며, 교회 전체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요람이 되어주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교회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가장 잘 수행될 수 있습니다. 머리와 마음과 삶이 제자로서의 그것들로 균형 있게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신앙적, 성경적 지식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한 영적인 경험 및 기독교 전통과의 만남, 그리고 교회공동체 내, 외적인 봉사 및 상호관계 맺음 등을 통한 훈련과 양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온 교회로 그 제자 삼는 교육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성숙할 때,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인적인 성숙의 모습으로 배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멤버들은 진정한 전인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 갈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며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물론 공동체 멤버들이 모두 완벽해야 하며, 그래야 제자삼기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때가 더 많을 것이되, 바로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지지하고 또한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제자 삼기의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을 그리스도의 교육 명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독교교육의 기초로서 인식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사안 제자삼기의 체인(Chain of Disciple-Making)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삼기의 체인은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온 교회가 함께 수행하는 제자삼기 교육에 있어서 그 제자삼기는 결코 일회적이고 단절된 성격의 사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것이 지속적이며 연쇄적이며 연결적인 성격의 사역이라는 뜻이며, 또한 그 성격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자삼기 체인, 제자삼기 교육이란 다른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길러내는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삼기는 본디,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느 한 사역자가 어느 한 사람으로 제자를 삼았다면, 이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는 또 다른 이로, 또 그는 또 다른 이로 제자를 삼는, 지속적이고 연쇄적인 체인 작용이 그 본성으로 내재되어있습니다(그리고, 원론적으로 제자의 수는 1명 기준 정배수로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multiply). 이에 우리의 제자삼기 교육은 반드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최초 제자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교육할 뿐 아니라, 그가 다른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기까지 교육하여야 하며,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삼기가 체인작용이므로, 이를 위한 기독교교육 또한 그 체인 작용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 교육은 교회 전체의 교육적 사명
지속적, 연쇄적, 연결적 성격의 사역 ■ 복음전파가 출발점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을 그리스도의 교육 명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독교교육의 기초로서 인식할 때,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마지막 이슈는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이 한인교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은 성경지식의 성장, 기독교적 양육, 인성 성숙, 영성 및 경건 그리고 전도 훈련 등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에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가르친 바를 지키게 하라는 교육 명령으로 표현된). 그렇지만 그 가장 처음의 출발점은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 삶의 모범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선포로 그 일을 시작하여, 제자가 아니었던 자들로 제자가 되도록 결단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인교회는 더 이상 20-30년 전처럼 60-70% 이상의 한인들이 교회 공동체 두리안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및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대략 이제는 전체 한인들의 20-30%만이 교회공동체 안에 있다고들 합니다.

〈16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소서!(삼상8:4-5)

사무엘이 늙어서 두 아들들을 세웠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왜곡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사무엘은 나이가 들고 아들들은 악한 행동을 하여 신임할 수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고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로들의 모임과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당장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한 행동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옳고 정당해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세상 왕과 같은 왕을 세워 강대국을 만들고 부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삼상8:6-9)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사사를 세워달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무조건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악하여"라는 뜻으로써 속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무 표시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모든 말을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중심 말씀중심으로 사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장로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화를 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의 책임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즉시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삼상8:9-12)

사무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까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만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분명히 말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9절).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열방과 같은 왕을 세우게 되면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방과 같은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세상에 종노릇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병거도 주고 말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병거와 말을 앞서 끌고 다니며 왕들의 시중을 들고 그 왕을 위해서 종과 노예와 같이 중노동만 하게 돼있습니다.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목 너희 양떼의 십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삼상8:13-17)

세상은 우리를 잘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이민와서 처음에는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다가 사업이 잘되고 형편이 좋아지면서 세상과 물질의 노예가 돼 세상의 종노릇만 하며 사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점점 더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세상에 나가서 온 가족을 동원해서 일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신하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성도는 착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세상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어 갖는 것 같지만 세상왕은 중요한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누기 때문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큰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삼상8:18)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다해 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빼앗긴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다 빼앗기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의지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중에 세상 왕이 괴롭혀서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길입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방패요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단순해보이지만 자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야하겠습니다.

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삼상8:19-22)

사무엘은 온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며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실패의 길로 갈 때 그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서 더 신실하게 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실패를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신실하고 좋은 왕을 세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넘치게 됨을 다윗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www.lapioneertour.com
P.I.O.N.E.E.R P.I.L.G.R.I.M T.O.U.R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대표전화 714-351-0124
품위있는 성.지.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와 함께 하시면 순례가 은혜스럽습니다.
여행상품 · 일정
터키/요르단/이스라엘-12일 $3699
* 출발일: 4월4일, 18일/ 5월 2일/ 9월 19일/ 10월 3일, 17일/ 10월 31일
터키/그리스/이태리-12일(13일) $3499
* 출발일: 4월 5일, 11일, 25일/ 5월 3일, 9일/ 5월31일/ 7월 26일/ 9월 20일, 27일/ 10월 10일, 11일, 25일(13일)/ 11월 7일, 28일
터키/그리스 -10일 $2799
* 출발일: 4월 5일, 19일/ 5월 3일/ 9월 20일/ 10월 4일, 18일/ 11월 1일
터키/이스라엘-10일 $3199
* 출발일: 4월 12일, 26일/ 5월 10일/ 9월 11일, 25일/ 11월 8일, 29일
터키/밧모/그리스-11일 $3299
* 출발일: 4월 26일/ 5월 24일/ 6월 28일
터키/그리스/이스라엘-12일 $3799
* 출발일: 4월 19일/ 5월 17일/ 6월 21일/ 7월 26일/ 9월 13일/ 10월11일
요르단/이스라엘-9일 $3199
* 출발일: 4월 6일, 20일/ 5월 4일, 18일/ 6월 1일/ 9월 28일/ 10월12일, 26일
이태리/(요르단)/이스라엘-9/11일 $4199
* 출발일: 4월 13일, 27일/ 5월 11일/ 7월 24일/ 9월 14일/ 10월 5일
체코/독일/스위스/프랑스-10일 $3999
* 출발일: 4월 13일/ 6월 14일/ 9월 20일/ 10월 18일
체코/독일/스위스/이태리-10일 $3999
* 출발일: 5월 10일/ 8월 9일
※ 유류할증료, 항공세 포함
※ 비자피, 출.입국세는 별도
※ 여행자 보험은 옵션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세요!
714-351-0124 성지전문 15년의 경력 졸 최 목사
함께 하면 은혜스러운 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PIONEER PILGRIM TOUR
새로운 성지순례의 지평은 연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주소: 17510 Pioneer Blvd, #210 Artesia, CA 90701
* E-mail: choigh1115@gmail.com, choigh1115@hanmail.net * 파이오니아 사무실: FAX.(562)403-3363

DYNAMICS 다이나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로고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부동산 교회 매매
Re/Max 부동산
●건물 12500 ft²
●땅 24500 ft²
●가격 3백 5십만
●한인타운LA
솔로몬 김
213-725-9900
2백만불 정도
교회도 찾습니다
매매에 정보를 주시는 분께 응당 사례합니다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인/터/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신임 총회장 김영수 목사(브라질 사랑의교회 담임)

"개혁과 화합 추구함으로 더 성숙한 총회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9회 총회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에스겔 47:9)"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이과수공항 호텔에서 열려 그 어느 해보다 은혜롭게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영수 목사는 "첫째,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교단의 정체성 확립 둘째, 인내로 개혁하는 총회 셋째, 개혁과 동시에 화합을 추구함으로 보다 더 성숙한 총회 넷째, 세계선교에 비전을 가진 교단 다섯째, 조국의 교회들과 조국 통일을 위해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총회" 등의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김영수 목사와 지면 인터뷰를 통해 총회장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 총회를 이끌어갈 계획을 들어본다.

1. 총회장 당선소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총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무엇을 이루겠다는 말씀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최선을 다해 성경과 교단 헌법을 중심으로 총회를 섬기겠습니다.

2. 이번 총회는 그 어느 해보다 은혜롭고 하나 되는 성총회였다고 하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39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총회를 준비하면서 인간인지라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38회 회기 중 부총회장으로 총회를 섬기는 중에 총회 안에 산적해있는 문제들과 잠재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총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혁하여 더욱 성숙한 총회를 이루고자 1년 동안 매달려 기도했는데 금번 총회를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다툼이나 시비가 없이 용서하고 화합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총대원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하나 되는 성 총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총회를 염려하며 걱정하시는 모든 총대원들과 총회 산하 모든 교회의 기도 응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의 힘 모아 교단의 위상 높이고 정체성 확립
세계선교의 비전 크게 갖고 조국 통일 위해서도 노력

3. 신임총회장으로 총회를 이끌어갈 계획과 비전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후배들은 선배들을 존경하며 선배들은 후배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서 총회를 섬길 수 있는 넉넉한 터전을 마련해 줌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본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들은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본 교단에 남아 있도록 후배들을 배려하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39년 동안 고시를 치루고 본 교단에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1000여명 되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모두 어디로 갔는지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1.5세, 2세들과도 함께 어울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불어 총회를 섬겨 감으로 우리 총회가 꿈이 있고 활기가 있는 총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발표된 것 같이 이번 총회 임원 중에는 1.5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1세와 1.5세, 2세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총회가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개혁은 인내가 있어야 하지요. 개혁과 동시에 화합을 추구해서 성숙한 총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세계선교에도 큰 비전을 가진 교단으로 그 꿈을 실현해가며 조국과 조국의 교회들, 조국 통일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총회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많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4. 총회장이 보시는 현재 교계의 상황은?

지금 우리 조국 교회를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현상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가장 부패했던 시대인 사사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신앙이 타락하고 윤리와 도덕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함과 암담한 사건들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이 크게 들어나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겸손히 주의 뜻을 물으면서 섬김으로 개교회가 바로 나간다면 교단은 물론 온 교계가 바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5. 선교에 비전과 방향에 대해

저는 브라질에 30여 년 전에 선교사로 와서 교포 교회를 섬기며 선교하는 일에도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선교 현장을 조금 아는 편입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을 드려다 보면 참으로 보내심을 받은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자기와 가족이 온전히 헌신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적은 수이지만 어떤 분들은 선교를 생계나 자녀들의 교육에 목적을 두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목적과 의도는 따로 깊이 감추어져 있어 타인은 물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서 많은 세월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는 아무나 선교사로 마구 보내지 말고 검증된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적극 후원하였으면 합니다.

6. 브라질교계와 사랑의교회에 대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브라질은 황금 어장과 같은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물론 50여 이민교회가 전심으로 선교사들을 협력하며, 현지인 교회를 세우며, 그 선교지들을 관리하며, 아프리카의 포르투칼어 언어권에 현지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면서 한인교계가 초교파적으로 하나 되어 선교지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교회 역시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현지인 교회를 아마존까지 브라질 곳곳에 9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도우며, 신학생들을 양육하며, 모잠비크에 선교사 두 가정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는 산하 지역인 남미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에 모처럼 선교현장인 브라질 이과수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흐르게 하라"(겔47:9)는 주제 아래 열려진 총회가 결실이 있는 총회가 되어 짐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총대원들과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총회위에 넘쳐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시(詩)로 읽는 성경(聖經) -모세오경

志常 김길홍 목사
(시인/소설가)

열두 지파의 아버지 야곱(Jacob, Israel)
(창세기 27:1-36:43)

야훼 축복 움켜쥐고파 어미 탯줄 속 필사(必死)의 몸부림이더니
형 "에서" 대신 하늘 문 열어 아비 두 손 올리게 한 복된 자이어라

어버이 떠나 황량한 들판 몸 뉘어 돌베개하고 잠 못 이룬 밤
파아란 꿈자락 펴며 하늘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본다

양치는 우물가 처녀 라헬에게 마음 뺏겨 머슴살이 칠년 하루 같아
첫날밤 장인 라반에게 속아 큰 딸 레아이니 망연자실(茫然自失)이었네
관습 따라 칠일 보내고 라헬 맞아 그녀 위해 다시 칠년 머슴살이라

빈털터리 십사년 약속어긴 외삼촌 라반과 다시 약조하더니
야훼 손길 하늘 문 열려 육년 후 큰 부(富) 이루었네

기도의 사람 야곱 아내 네 사람 열두 명 아들과 딸 하나 주시니
이스라엘(Israel) 자손의 못자리판이로다 야훼께 영광 영광

야곱 레아에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디나
라헬에게 요셉,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에게 단, 납달리
레아 시녀 실바에게 갓, 아셀, 잇사갈, 스블론이니

열두 별들이라

모진 세월 이십년 재물 많으나 외삼촌 라반의 눈빛 시려 가족소유 이끌고
도망치다가 미스바에서 경계 맹약하고 고향길 바라보니 형에서 눈 지피네

얍복강 나루 무릎 꿇고 기도로 님 이기니 야곱 이름 바뀌어 이스라엘 되도다
군사 사백명 이끈 한많은 형 에서 눈물로 화해 사랑 나누니 야훼의 은혜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 거할 때 그의 딸 디나 세겜 추장 욕보여 시므온과 레위
세겜 가족 진멸하고 보복 두려워 온 가족 벧엘 오니 야훼 주신 땅이라

육체사람 에서도 헷족속과 이스마엘 딸들과 장가들어 세상자녀 많으니
여러 족장들의 조상되었네

〈15면에서 계속〉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바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한인교회가 제자삼기교육의 출발점인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초대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일과 동시에 교회 두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성숙 및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를 훈련할 수 있도록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사역자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한인교회들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서로를 교육하여 상호성숙을 도모하는 사역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이해와 존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아마도 한인들의 힘겨운 경쟁의 삶은 이러한 이해와 존경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힘들게 했었던 듯합니다. 이제 우리 한인교회가 제자삼기교육을 그 교육적 기초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고 성숙하여 져서 한인사회와 미국사회,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KACWA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6차 북미주연합 컨퍼런스

할렐루야!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에서 미주 안에 흩어져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사역하시는 여성목회자 여러분들을 2015년도 제6차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캐나다 아름다운 온타리오 호수가에서 펼쳐질 은혜와 감동의 시간으로 영적인 도전과 쉼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금번 컨퍼런스는 북미주여교역자협의회와 연합하여 진행되며 회원 및 모든 여성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역에 새 힘을 얻기를 갈망하시는 모든 여성목회자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 일 시 : 2015년 6월22일(월)-6월24일(수)
● 장 소 : The Jackson's Point Conference Center, Ontario ,Canada
● 참가대상 : 본회회원, 목사, 전도사, 신학생 사모
● 연 락 처 : (646)270-9771 (917)669-0461
● 등록비$200, 교통비$50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http://usaamen.net/news/x/3c.pdf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회장 전희수 목사 총무 김정숙 목사 서기 권캐더린 목사